

《西遊記》 豬八戒의 性格特徵 研究

박춘영*

< 목 차 >

- 제1장. 誠實하고 勤儉한 性格
 - 1. 1 잘 먹고 잘 자는 저팔계
 - 1. 2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저팔계
- 제2장. 率直하고 單純한 性格
 - 2.. 1 재색을 좋아하는 저팔계
 - 2.. 2 진솔하고 순박한 저팔계
- 제3장. 奇拔하고 諧謔인 性格
 - 3. 1 바보 같은 저팔계
 - 3. 2 슬기로운 저팔계
- 제4장. 誠心誠意껏 禮佛하는 性格
 - 4. 1 우왕좌왕하는 저팔계
 - 4. 2 서천으로 향하는 저팔계

《서유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저팔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친숙한 인물이다. 손오공에 비해 저팔계의 혈통문제는 더 복잡한데 그의 형상의 연원에 대해 《서유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이는 《박통사언해》의 주석에 있는 《서유기평화》의 “黑豬精 朱八戒”라는 인용에서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서유기잡극》에서는 “朱八戒”를 “豬八戒”로, “黑豬精”을 “金色豬”로 고치고 천계에서 금방울을 도적질하고 금 자물쇠를 열다가 하계로 쫓겨나 요괴가 된 “魔利支天部下 御車將軍”이라고 하였다. 《서유기》에서는 잡극의 저팔계란 이름을 따왔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지만 그의 유래는 바뀌었다. 제 8회에서 원래 그는 天河의 天蓬元帥로, 술에 취해서 嫦娥仙女를 희롱하다가 玉皇上帝에게 벌을 받아 인간세계로 쫓겨 내려왔는데, 암 돼지 태에 잘못 들어간 탓에 돼지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후에 그는 관음보살에게 摩頂受戒를 받고 佛門에 귀의한다.

손오공과 마찬가지로 저팔계도 사람과 짐승, 신이 합쳐진 통일체이다. 사람이란 측면에서 그는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일을 하며 심리활동, 사유, 정감 역시 세속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그는 분명 보통사람과는 구별된다. 외모가 흑돼지와 흡사할 뿐더러 심지어 돼지와 같은 습관 등은 그의 동물적인 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구름과 안개를 타고 36가지 변화에 정통하며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신통력을 갖고 있는 내력 등은 인간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팔계의 사람과 짐승, 신, 이 세 가지 다른 속성은 아주 교묘하고도 적절하게 한 인물에 집중되어 그 형상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고 친근감을 준다. 물론 저팔계의 몸이 사람, 짐승, 신이란 세 가지 속성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중 사람의 특징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때문에 저팔계의 성격과 개성을 담론할 때 아마도 그의 사람으로서의 측면에 치우쳐야 할 것이다. 백희본 《서유기》 가운데 저팔계의 인물 형상은 복잡하고도 풍부하여 사람들에게 생생한 입체감과 변화감을 던져준다.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행 중 삼장법사, 손오공과 사오정은 등장하자마자 개성과 형상이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언행에서 새로운 표현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성격에는 그리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저팔계의 개성만은 이야기 줄거리의 진화에 따라 발전하며 그 형상은 줄거리의 추이에 따라 풍부해 진다. 앞의 각도에서 말할 때, 《서유기》는 바로 저팔계 인물 형상의 역사이자 개성 전개의 발전사이다.

저팔계의 성격은 그의 외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을 알기 전에 먼저 그의 생김새부터 알아야 한다. 《서유기》¹⁾ 속 삼장법사의 세 제자 가운데서 손오공은 “키가 넉자가 안 되어(身不滿四尺)” 가장 “작고 제일 왜소(矮倏)”

1) 백희본 소설 《西遊記》의 인용문은 모두 《李安綱批評西遊記》上下卷(無名氏原著·李安綱批評, 中國社會科學出版社·中國社會出版社, 2004년.)에서 나온 것이다. 짧은 문장의 출처는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西遊記》로 약칭한다.

하며, 사오정은 “키가 한 장 두지나 되고 팔은 세 정자를 끌어안을 만하게 넓고(身長丈二, 膊闊三停)”, 저팔계는 “몸이 실하고(身粗)”, “배가 크며 등과 어깨가 퍼져(肚大背膊寬)” 제일 우람하다. 그의 용모는 손오공처럼 변화가 많지 못하지만 福陵山에서 요괴로 처음 출현할 때 포악스럽고도 추악했다.

연잎이 들들 말려 젖혀진 듯 비죽 나온 주둥이에,
 두 귀는 부채 모양 너울거리고 금빛 눈동자가 데룩데룩 구르는데,
 입술 악문 송곳니는 줄칼처럼 날카롭고,
 기다란 주둥이에 짝 벌린 아가리는 숯불 담긴 화로 같다.
 금빛 투구 끈을 턱 밑에 단단히 조여 매고,
 미늘 갑옷은 낡아빠져 허물 벗은 구렁이 같다.
 손에 잡은 쇠스랑이 용의 앞 발톱이라던,
 허리에 찬 활대는 반달처럼 휘었다.
 위풍이 당당하기는 太歲를 뺨칠 정도요,
 험걸찬 기백은 天神을 압도할 지경이다. 제 8회
 (捲髯蓮蓬吊搭嘴, 耳如蒲扇顯金睛。
 獠牙鋒利入鋼錐, 長嘴張開似火盆。
 金盔緊繫腮邊帶, 勒甲絲綯蟒退鱗。
 手執釘鈇龍探爪, 腰挎彎弓月半輪。
 糾糾威風欺太歲, 昂昂志氣壓天神。)2)

그가 高家莊에서 데릴사위로 있을 때 검고 뚱뚱한 사나이에서 “주둥아리가 비죽 나오고, 두 귀가 대장간 부챗살보다 더 커져서 너울거리는 바보 멧덩구리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뒤통수에는 억센 갈기 터럭이 돌아나고 살갓마저 우툴두툴 거칠어져서, 머리통하고 상관은 한마디로 돼지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長嘴大耳朵的呆子, 腦后又有一溜鬃毛, 身體粗糙怕人, 頭臉就象個豬的模樣.)”3) 그러나 손오공이 고가장에서 처음 그와 맞붙었을 때 그의 모양은 “시커먼 상관에 짧은 터럭, 비죽 뻗어 나온 주둥이에 부채질하듯 너울거리는 두 귀, 몸에는 푸른색도 아니요 쪽빛도 아닌 시퍼런 무명 직철을 한 벌 걸쳤는가 하면, 머리통에는 얼룩얼

2) 《西遊記》, 제8회, 109쪽.
3) 《西遊記》, 제18회, 231쪽.

룩한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있었다(黑臉短毛, 長喙大耳; 穿一領青不青、藍不藍的
梭布直裰, 繫一條花布手巾。).⁴⁾

그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 대열에 가입한 후의 용모를 보자.

디딜방아 자루처럼 길게 뻗은 주둥이가 에누리 없이 석 자쯤 되어 보이고,
두툼한 입술 틈서리로 비죽 나온 빠드렁니가 은 못을 박아놓은 듯하다.
한 쌍의 고리눈이 번갯불처럼 번쩍번쩍하고,
두 귀가 부채질하듯 너울거릴 때마다 세찬 바람이 휘휘 난다.
뒤통수 덤미에는 강철 화살보다 역센 갈기 터럭이 기다랗게 벌여
돋았으며,
진신에 뒤덮인 살가죽은 거칠고 지저분하고 푸르맹맹하다.
두 손에 기괴망측한 연장을 한 가지 쓰는데,
이빨 아홉 달린 쇠스랑에 보는 사람마다 놀라 자빠질 지경이다. 제 85회
(確嘴初長三尺零, 獠牙齧出賽銀釘。
一雙圓眼光如電, 兩耳扇風唼唼聲。
腦后鬃長排鐵箭, 渾身皮糙癩還青。
手中使伴蹊躑物, 九齒釘耙個個驚。)⁵⁾

그 외에 《서유기》에서는 또 그가 “말 얼굴(馬面)”, “철편 얼굴(鐵片臉)”, “용모
가 징그럽고 모양이 요괴같다(形容獍惡, 相貌如精。)”는 설이 있다. 또 그를 “멧돼
지(野豬)”, “돼지요괴(豬精)”, “돼지 도깨비(豬怪)”, “늙다리 돼지(老鬍)”라고 부른다.
실제로 그의 본래 면모는 한 마리의 돼지이다.

제1장. 誠實하고 勤勉한 性格

《서유기》에 등장하는 저팔계는 먹기를 탐내고 마시기를 즐기는데, 이에 대
해 묘사가 매우 많다. 그가 먹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첫째, 음식이 좋건 나쁘건 말랑

4) 《西遊記》, 제18회, 233쪽.
5) 《西遊記》, 제85회, 1046쪽.

말랑하건 딱딱하건 간에 그대로 삼켜버리면서, 씹거나 맛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팔계가 인삼과를 먹다(豬八戒喫人參果)”라며 책망하는 말은 《서유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둘째, 그의 창자가 골짜기처럼 긴 밥통 같고, 사람이 놀랄 정도로 큰 데 고금에는 이 때문에 그에게 짝이 없다는 것이다. 高太公이 혼약을 취소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한 끼에 네다섯 말의 밥을 먹어야 하고 아침나절의 간식으로는 구운 떡 백 개를 먹어야 성이 차기(一頓要喫三五斗米飯, 早間點心, 也得百十個燒餅才飽. 제18회)⁶⁾ 때문이다. 또한 저팔계가 잠자기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잠잘 때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큰 푸른 바위 위에서 그는 아주 달콤히 잘 수 있고 가시 덩굴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 만약 짚더미 속에다 돼지 잠자리를 만든다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런 잠자는 모양을 그의 생김새와 연계시키면 사람들의 욕설을 자아내기 보다는 오히려 웃음을 자아내기가 일쑤다.

1.1 잘 먹고 잘 자는 저팔계

한평생 살면서 저팔계의 가장 큰 욕구는 먹고 마시는 것이다. 데릴사위가 된 것도 먹기 위한 것이요, 중이 된 것도 역시 먹는 것과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는 북릉산에서 가장으로 있을 때 卯二姐의 가산을 다 털어먹은 적이 있고, 후에는 고로장에서 엄청난 식사량으로 소문이 났었다. 불경을 구하러 가는 대열에 가입한 후에는 늘 배가 고프다고 떠들어댔다. 사람들이 식사를 청할 때마다 그는 꼭 산해진미가 차려져 한 끼 잘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곤 했다. 맛있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입안에 군침이 돌아 목구멍으로 침을 꿀꺽 삼킨다(口內流涎 喉嚨裏“癢癢”嚙唾. 제68회)⁷⁾ 西梁國 여왕이 쌀 세 말을 내주며 가는 도중에 밥이라도 해 먹으라고 했다. 제54회 저팔계는 “밥(齋)”이라는 말을 듣자 바로 그걸 받아 붓집 가운데 앉았다(제88회). 마침 앉아서 꾸벅꾸벅 졸던 저팔계가 “供養”이란 말을 듣고 별떡 몸을 일으켰다(제44회). 저팔계는 잠결에도 손오공이 사오정하고 함께 車

6) 《西遊記》, 231 쪽.

7) 《西遊記》, 831 쪽.

暹國의 三清觀에 가서 “공양”을 받자고 하는 말을 듣고 번쩍 눈을 떴다. 그는 늘 밥을 먹기만 바랐고, 언제나 배가 고파 창자에 불이 나는 것 같았다. 通天河 강변에 위치한 陳家莊에서 그곳의 노인들이 삼장법사 사제들에게 밥을 대접하였다. 멍텅구리 저팔계는 빨리 음식을 먹고 싶고 또 배가 고프기도 했으니, 삼장법사가 《啓齋經》 한 권을 다 외기도 전에 벌써 밥을 대여섯 사발 거뜬히 해치웠다.

그리고 나서야 일행과 더불어 점잖게 젓가락을 높이 쳐들고 음식을 들기 시작했는데, 이 미련통이 바보 녀석은 쌀밥이든 국수든, 과일이건 떡이건 닥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움켜다가 입에 쑤셔넣으면서도 모자란다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밥을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기만 하는 거야?” 손행자가 보다 못해 소리를 꽤 질렀다. “여보게, 자그마치 먹어두지 못하겠나! 산골짜기에서 배가 고파 찢찢대던 생각을 해서라도 배를 절반쯤만 불러두어도 나쁠 게 없지 않겠느냐 말이다.” 저팔계가 답했다. “형님은 잠자코 계시오. 속담에도, ‘동냥 다니는 비렁뱅이 중이 한 끼니 배불리 먹지 못하면, 차라리 산 채로 땅속에 파묻혀 죽기보다 못하다’는 말도 못들어 보셨소?” 제 47회

(然後却才同舉箸，一齊喫齋。呆子不論米飯面飯，果品閑食，只情一撈亂噎，口裏還嚷：“添飯！添飯！”漸漸不見來了！行者叫道：“賢弟，少喫些罷，也強似在山凹裏忍餓，將就穀得半飽也好了。”八戒道：“嘴臉！常言道：‘齋僧不飽，不如活埋’哩。”)8)

서량국에서 여왕이 차린 연회식에 오른 쌀밥이며 구운 떡, 찢 떡과 여러 가지 채소들을 “한꺼번에 깨끗이 먹어치웠다(一骨辣噎了個罄盡. 제54회).” 鳳仙郡에 있을 때 그의 먹는 모습은 더욱 놀랍기만 하였다.

얼마 있다가 밥상이 나오자, 걸신들린 저팔계는 허리띠를 풀러놓고 마음껏 퍼먹기 시작했다. 얼마나 배를 곯았는지 사흘 굶은 호랑이처럼 아귀아귀 먹어대는 꼬락서니에, 음식 쟁반을 떠 받쳐 들고 있던 시중꾼들은 가슴살이 떨리고 간담이 서늘해져 두 다리와 양팔을 와들와들 떨어가면서 국을 더 부어주랴 밥을 더 퍼주랴, 모자란 음식을 더 내오랴 갈팡질팡 走馬燈처럼 정신없이 드나들며 배가 터지도록 먹은 손님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시중을 들어야

8) 《西遊記》，제47회, 584-585 쪽

했다. 제 87회

(少頃齋至, 那八戒放量吞餐, 如同餓虎。唬得那些捧盤的心驚膽戰, 一往一來, 添湯添飯, 就如走馬燈兒一般, 剛剛供上。直喫得飽滿方休。)9)

저팔계는 매번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저팔계는 “다 먹고 더 달라 해서 또 먹으며, 배가 잔뜩 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어서야 손을 놓았다(喫了又添, 添了又喫, 直喫得撐腸拄腹, 方才住手. 제 94회).10)

銅臺府의 地靈縣인 寇員外의 집에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행은 구원외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구원외는 일행을 모시고 齋堂으로 들어가 공양을 들었다. 그곳에는 음식들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다.

에닐곱 하인들이 음식 들고 분주히 드나들며 네댓 요리사는 손 쉴 틈이 없었다. 국을 올리는 사람, 밥을 퍼주는 사람들이 정말 달을 쫓는 유성처럼 분주히 드나들었다. 저팔계는 한 입에 한 그릇씩 해치우는데 정말 바람에 조각구름 쓸려 가는 듯했다. 이렇게 일행은 배불리 식사를 했다.

(七八個僮仆往來奔奉, 四五個庖丁不住手。你看那上湯的上湯, 添飯的添飯, 一往一來, 眞如流星趕月。這豬八戒一口一碗, 就是風卷殘雲, 師徒們盡受用了一頓。)11)

이렇게 커다란 창자를 채우기 위해 그는 서행 도중에 적잖게 성가신 일을 만들었다. “五莊觀에서”의 난(제24회)은 그가 손오공을 꼬드겨 인삼과를 도적질하게 하였고 朱紫國에 갔을 때도 손오공이 국왕을 위해 만든 환약에 말 오줌을 섞었는데 그가 술을 마시지 못해 범석을 떠는 통에 하마터면 비밀이 폭로될 뻔하였다(제69회). 식욕 때문에 그는 늘 꼬임에 빠져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지 못하였다. 시체요괴

9) 《西遊記》, 제87회, 1070쪽.

10) 《西遊記》, 제94회, 1160쪽.

11) 《西遊記》, 제96회, 1186쪽. 寇員外는 삼장법사를 붙잡으며 극구 만류했다. 삼장법사는 어쩔 수 없이 떠질 동안 더 머물렀다가 다시 길을 재촉하려고 하자 寇員外는 또 풍성한 연석을 차렸다. 해가 중천에 뜨자 삼장법사는 젓가락을 들고 《揭齋經》을 읊고 저팔계는 허둥지둥 밥과 국을 가져다 한 입에 한 그릇씩 털어 넣어 대역섯 그릇이나 비웠다. 그리고 전갱과 꽃 빵, 호떡, 과자를 양 소매에 가득 집어넣고 나서야 삼장법사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96회(日將中矣, 長老在上舉箸, 念《揭齋經》。八戒慌了, 拿過添飯來, 一口一碗, 又丟盡有五六碗。把那饅頭、卷捲兒, 餅子, 燒果, 沒好沒歹的, 滿滿籠了兩袖, 才跟師父起身。1190-1191쪽.)

가 가져온 쌀밥과 국수는 분명히 길쭉한 구더기와 청개구리, 전갈 같은 것들을 변화시켜 만든 것이었지만 그는 “다짜고짜로 아가리를 들어 한 입에 털어 넣으려 했다(不容分說, 一嘴把個罐子拱倒, 就要動口. 제27 회).” 碗子山 波月洞의 黃袍怪가 그더러 동굴에 들어가 “사람 고기로 만든 만두(人肉包兒)”를 먹어 보라고 권하자 그는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바로 들어가려 했다(認真就要進去. 제28 회).” 그에게 “먹을 생각밖에 없다(只是想着喫食)” 보니, 號山 부근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사이도 없이 칼로 밧줄을 끊어 나무 위에 있는 홍해아가 변한 아이를 내려놓았다(제 44 회).

또한 저팔계가 잠자기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잠잘 때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밤에 잠을 잘 때 삼장법사가 자기를 밟았다고 밟꾼 성을 내기도 하였다. “야밤에 삼장법사에게 구원을 요청한 烏鷄國王(鬼王夜謁唐三藏)”의 한 장면을 보자.

삼장법사가 …(중략)… 다급히 “애들아! 애들아!”하고 언거푸 불렀다. 저팔계는 잠이 깨서 말했어요. “이거 또 뭐가 “야들야들”하다는 거야? 내가 사내대장부로 살던 시절엔 말이야, 사람만 잡아먹고 날마다 온갖 날고기 비린내에 정말 즐거웠다고. 그런데 하필 출가한 중이 나타나 우리더러 자기 가는 길을 보호하라는 거야. 웬걸, 처음엔 중노릇을 하라더니, 이젠 아예 노예로 부려먹어. 낮에는 짐 보따리 지고 말을 끌어야지, 밤엔 요강 들고 밧 담히는 시중까지 들어야지. 여태 잠도 안 주무시고 왜 또 “애들아!”하고 불러댈니까?” (제37 회) (三藏……連忙叫：“徒弟！徒弟！”八戒醒來道：“甚麼“土地土地”？當時我做好漢，專一喫人度日，受用腥膻，其實快活。偏你出家，教我們保護你跑路！原說只做和尚，如今拿做奴才。日間挑包袱牽馬，夜間提尿瓶務腳！這早晚不睡，又叫徒弟作甚？”)¹²⁾

더욱 흥미 있는 것은 돼지란 배불리 먹어야 잠을 지는데 저팔계는 굶주려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틀어박고 퉁퉁 잠을 잘 수 있다는 점이다.

삼장법사가 화가 나서 미후왕을 쫓아버린 후 부득불 저팔계가 나서서 동냥을 해야 했다. 하지만 저팔계는 동냥하러 가기만 하면 만나질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

12) 《西遊記》, 제37회, 457쪽.

았다. 삼장법사는 귀가 뜨거워지고 눈이 튀어나올 듯 조바심이 나서 급히 사오정을 불렀다.

“오능이 동냥하러 나가더니 어째서 돌아오는 게 이리도 늦는지 모르겠다.” 사오정이 말했다. “사부님,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 서방 세계 사람들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까, 오가는 화상들에게 곤잘 보시를 해줄 겁니다. 팔계 형님도 그런 사람을 만나 아마도 한턱 단단히 얻어먹고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 형님은 워낙 밥통이 크고 먹성이 좋아서 자기 배나 채울 욕심으로 마냥 놀러앉아 있기만 할 뿐이지, 사부님 생각을 할 게 뭘니까 저 혼자 배가 터지게 실컷 먹고 나서야 돌아올 생각을 할 겁니다.”
(“悟能去化齋，怎麼這早晚還不回？”沙僧道：“師父，你還不曉得哩。他見這西方上人家齋僧的多，他肚子又大，他管你？只等他喫飽了才回來哩。”)¹³⁾

한편, 숲을 나와서 저팔계를 찾던 사오정은 문득 풀숲 속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 급히 지팡이로 깊은 풀숲을 헤치고 살펴보니, 저팔계 그 멧덩구리가 그 안에서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그놈은 사오정이 귀를 잡아당기자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

정말 멧청이로군! 사부님이 형님더러 동냥을 해오라고 하셨지 여기서 잠이나 자람디까?(好呆子啊，師父叫你化齋，許你在此睡覺的?)¹⁴⁾

그 멧덩구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잠에서 깨며 말했다. “동생,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兄弟，有甚時候了?)”(제28회)¹⁵⁾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저팔계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잠에 굶아 떨어졌던 것이었다.

이처럼 저팔계는 먹기와 잠자기를 좋아하여 한 끼 잘 먹기 위해 갖은 추태를 보이고 놀림을 받는다. 또 잠을 좀 자기 위해 약은 모습을 보이고 일에 책임감이 없고 사심이 많고 게으르며, 심지어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 도망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만 돼지로서의 성격 중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약점과 결함의

13) 《西遊記》, 제28회, 348쪽.

14) 《西遊記》, 351쪽.

15) 《西遊記》, 351쪽.

배후에는 기실 저팔계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 대열의 일원으로서 굶주리고 잠이 부족하다는 점과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한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다.

1.2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저팔계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기나긴 노정에서 저팔계는 불만이 있어 책임을 벗어버리려 하지만 줄곧 고생하면서 무거운 짐을 진다. 한 번은 날이 저물어서 삼장법사가 쉬는 곳을 좀 찾자고 하자 손오공은 가다가 아무데서나 쉬면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저팔계는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형님, 형님은 훌기분한 몸으로 길을 가시니 다른 사람의 힘든 사정을 어찌 아시겠소? 유사하를 간나온 이래 줄곧 산을 기어오르고 영마루 고개를 넘으면서, 몸뚱이에는 무거운 짐짝을 짊어진 채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도무지 견디낼 재간이 없소! 어디 사람 사는 집을 찾아서 밥 한 끼 얻어먹고 한숨 돌려서 쉬어가야 할 게 아니겠소? …(중략)… 형님, 이 짐짝을 좀 보시구려.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나 하오? …(중략)… 형님, 내가 이걸 세어볼 테니 들어보구려! 등나무 껍질 요이불이 네 묶음에, 긴 밧줄 짧은 삼밭줄이 여덟 타래. 장마철에 습기 막는 담요가 서너 채, 평퍼짐한 대나무 광주리는 미끄러질까 걱정이요, 뽕의 양 끄트머리는 어깻죽지 살 속으로 파고들어 못이 박인다. 구리 장식 달리고 쇠를 두드려 만든 구환석장도 무거워 견디지 못할 판에, 대나무 속껍질 잘게 찢어 등나무 줄기로 엮은 커다란 차양까지 짊어졌구나. 이렇게나 많은 짐짝을 이 저선생 혼자서 날이면 날마다 떠메고 걸어가야 하니, 그림 형님 혼자서 사부님의 제자 노릇을 하고, 나는 머슴살이나 하라는 거요? 제23회

(哥啊, 你只知道你走路輕省, 哪裏管別人累墜? 自過了流沙河, 這一向爬山過嶺, 身挑着重担, 老大難挨也! 須是尋個人家, 一則化些茶飯, 二則養養精神, 纔是個道理。……哥哥你看, 這担行李多重? ……哥啊, 你看看數兒麼: 四片黃藤篾, 長短八條繩, 又要防陰雨, 氈包三四層。匾擔還愁滑, 兩頭釘上釘。銅鑲鐵打九環杖, 篾絲藤纏大斗篷。似這般許多行李, 難爲老猪一個逐日

家擔着走，偏你跟師父做徒弟，拿我做長工。)16)

멍텅구리 저팔계는 확실히 불만을 토로했고 화풀이도 하였지만 그가 말한 것은 전부 다 사실이다. 다만 말을 타고 가는 삼장법사와 흥분하게 길을 가는 손오공이 따뜻하게 대해 주지 못했을 뿐이다. 한 사람이 14년을 하루와 같이 십만 팔천 리 길을 가면서 줄곧 어깨가 부서질 정도로 짐을 메고 걸어 왔으니 그 속의 고생이야 친히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선 누가 알겠는가! 손오공은 기세 높이 요괴를 항복시키고 때려 눕혀 영웅이 되겠지만 저팔계가 한 일은 평범하고 반복적인 힘든 체력노동이다. 자기 소원은 아니었다지만 고난과 신고를 이겨냈다는 점에서 오직 저팔계가 진짜로 불문의 “漸修”, “漸悟”, “苦修”, “苦練”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어느 날은 요괴 왕이 억지로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너는 어디서 왔고 이름이 뭐냐? 빨리 대답하면 목숨은 살려주마!(你是哪裏來的，叫甚名字? 快早說來，饒你性命!)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요 다들 녀석아! 네놈은 멧돼지 조상님도 몰라보느냐? 말씀해줄 테니 이리 가까이 와서 들어봐라! …(중략)… 말고삐 잡고 등에 짐 보따리 짊어지는 고된 일을 도맡으면서, 전생에 당나라 스님께 진 빚을 갚고 있다. 鐵脚으로 이름난 천봉원수의 성씨는 “멧돼지 豬”요, 법명을 붙였으니 저팔계라 일컫는다. 제 85 회

(我的兒，你是也不認得你豬祖宗哩！上前來，說與你聽：……背馬挑包做夯工，前生少了唐僧債。鐵脚天蓬本姓豬，法名改作豬八戒。)17)

여기서 우연히 불만을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경을 구하러 가는 서행 길에서 짐을 지는 일을 자기의 천직으로 여겼다.

또한 밥을 배불리 먹고 힘이 나서 일을 할 때는 고생도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저팔계의 장점이다. 荊棘嶺에서 산이 가로막혀 길을 닦을 때, 악취가 풍기는 穢穢衢에서 길을 파헤치고 죽은 사람을 묻고 시체를 메어 나르는 등 어렵고 무겁고 바쁜 일은 모두가 그의 몫이었고, 전부 혼자서 도맡아 하면서

16) 《西遊記》, 제23회, 284쪽.

17) 《西遊記》, 제85회 1046 쪽

도 아무런 불만이나 후회도 없었다. 가시나무가 삐죽삐죽 자라고 넝쿨들이 단단히 감겨 있는 팔백 리 荊棘嶺에서 저팔계는 삼장법사를 위안하며 한바탕 위풍을 떨쳐 고생스러운 일을 한다.

저팔계가 꺾꺾대고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는 대로만 따라오십시오.” 큰소리 탕탕 친 미련통이는 그 자리에서 인걸을 밟고 중얼 중얼 주어를 외우더니 허리를 한 번 구부렸다가 힘차게 뺨으면서 외마디 소리를 쳤다. “뺨어라!” 그러자 몸집이 쑥쑥 늘어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20丈 가웃이나 되는 거인으로 변했다.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쇠스랑을 맞바람결에 휘두르는 것과 동시에 또 한마디 크게 외쳤다. “뺨해라!” 쇠스랑 자루 역시 30丈 남짓한 크기로 늘어났다.

삼시간에 거인이 된 그는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겨 때면서 두 손으로 쇠스랑 자루를 거머쥐고 번쩍번쩍 휘둘러 가시덤불을 좌우 양 곁으로 헤쳐 나가기 시작했다. “사부님, 잘 따라오십시오!” 길이 활짝 뚫리는 것을 본 삼장법사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말을 휘몰아 그 뒤에 바짝 따라 붙었다. 사오정은 짐보파리를 둘러메고, 손행자도 철봉으로 길을 헤쳐 나갔다.

이날 하루 동안 손질을 멈추지 않고 가시밭을 헤쳐 나간 거리가 1백 몇 십 리 길, 해 저물녘이 되어서야 한 군데 넓은 공터가 나타났다. 황량한 길바닥에는 뜻밖에도 비석 하나가 우뚝 세워져 있었다. 비면에는 석 자의 글씨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었다. 荊棘嶺 세 글자 밑에 또 잔글씨로 다음과 같은 열네 자가 새겨져 있다

가시덤불이 팔백 리 길에 뒤엎혀 덮였으니

자고이래로 길은 있으되 가는 사람 드물다.

저팔계가 그걸 보고 깔깔 웃으며 중얼거린다. “안 되겠군. 여기다 이 저선생께서 두 마디만 더 보태야겠네!”

이제부터 저팔계가 가시덤불 헤쳐 놓았으니

서방으로 가는 길이 곧장 뚫려 평탄하리로다.

삼장법사가 흥가분한 기색으로 말에서 내려섰다. “팔계야! 참 수고 많았다. 우리 오늘밤은 여기서 지내고, 내일 아침 날이 밝거든 다시 떠나기로 하자꾸나.” 칭찬을 듣고 한껏 기분이 좋아진 저팔계가 도리질을 한다. “사부님, 여기서 쉬지 마십시오. 아직 하늘이 밝은 데다 저희들도 신바람이 난 김에 밤새도록 이 빌어먹을 놈의 길을 헤치고 나아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나아가자는 데야 스승도 어찌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나설 도리밖에 없다. 저팔계는 앞장서 나아가는 동안 무척 애를 썼다. 스승과 제자들은 잠시도 손을 쉬지 못

하고 백마도 네 발굽을 멈출 새가 없었다. 이렇듯 다시 하루 낮 하룻밤을 가다 보니 또 하늘빛이 어둑어둑 저물었다. 제 64회

(八戒笑道：“要得度，還依我。”好呆子，捻個訣，念個咒語，把腰躬一躬，叫：“長！”就長了有二十丈高下的身軀，把釘鈹幌一幌，教：“變！”就變了三十丈長短的鈹柄。找開步，雙手使鈹，將荊棘左右攔開：“請師父跟我來也！”三藏見了甚喜，即策馬緊隨。後面沙僧挑着行李，行者也使鐵棒撥開。這一日未曾住手，行有百十里。將次天晚，見有一塊空闊之處。當路上有一通石碣，上有三個大字，乃“荊棘嶺”；下有兩行十四個小字，乃“荊棘蓬攀八百裏，古來有路少人行”。八戒見了，笑道：“等我老豬與他添上兩句：自今八戒能開破，直透西方路盡平！”三藏欣然下馬道：“徒弟啊，累了你也！我們就在此住過了今宵，待明日天光再走。”八戒道：“師父莫住，趁此天色晴明，我等有興，連夜攔開路，走他娘！”那長老只得相從。八戒上前努力，師徒們人不住手，馬不停蹄。又行了一日一夜，卻又天色晚矣。)18)

이 장면에서 저팔계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가마에 모셔서라도 사부님이 형극령을 넘어가시게 하겠다고 보증하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가! 또 한여름에 황산에 불을 놓는 방법을 반대하면서 실정을 알아보는 등 정말 세상일에 달통한 저팔계이다. 그 후 두 손으로 쇠스랑을 휘둘러 가시녕굴을 헤치며 사부님더러 자기의 뒤를 따르라고 하니 실로 기개가 넘친다. 그는 저녁까지 줄곧 일손을 놓지 않았고 또 돌비석에다 두 구절의 시까지 남겼으니 얼마나 씩씩한 기상인가!

사람들이 제일 탄복하고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67회에서 저팔계가 七絶山 팔백 리 稀柿衲에서 더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한 고생이다. 희시동은 해마다 무르익은 감들이 길에 떨어져 싸인 오물천지 “똥 길”이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자 사도 일행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오고갔다.

손오공이 곧바로 지시를 내렸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됐습니다. 지금 당장 마을로 돌아가셔서 쌀 두 섬으로 고두밥을 짓고 또 떡과 만두 같은 것을 썰서 이리로 가져오십쇼. 이제 저 주둥이가 기다란 우리 스님께서 큼지막한 돼지로 둔갑하여 길바닥을 쭉서 헤치고 나갈 터인데, 배불리 먹어야만 용을 쓸 수 있을거요. 그렇게 하면 사부님은 말 탄 채 아무 탈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것이

18) 《西遊記》, 제64회, 782-783 쪽.

고, 우리들도 사부님을 부축해드리면서 기분 좋게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팔계가 이 말을 듣더니 뿔뿔 뛰고 야단이다. “아니, 형님! 딴 사람들은 말쑥한 몸으로 갈 생각하고, 이 저팔계만 똥 길을 주둥이로 헤쳐가며 저 지독한 구린내를 혼자서 다 맡으란 얘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이때 삼장법사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 “오눔아, 네가 장말 그런 수단이 있어서 저 고갯길을 쭉서 헤치고 나를 무사하게 넘어가도록 해준다면, 그 공을 내가 으뜸으로 기억해두마.” …(중략) …

저팔계가 이런 다짐을 받아놓았으니 그 마음이야 오죽 호뭇하랴. 그 동안 늘 어놓던 불평불만은 하늘 바깥으로 훨훨 날려보낸 채, 김정빛 승복을 훌훌 벗고 아홉 이빨 달린 쇠스랑마저 한 곁에 툇 내던지더니 여러 사람 듣는 데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오. 이제부터 이 저선생께서 구린내 나는 공덕을 한바탕 씻어 보일 테니 구경들이나 잘하시오!”

마침내 이 용감한 미련통이가 인걸을 맺고 중얼중얼 주어를 외우면서 몸뚱이를 흔들더니,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나게 커다란 돼지로 둔갑을 했다.

(行者道：“既如此，你們去辦得兩石米的干飯，再做些蒸餅饅饅來。等我那長嘴和尚喫飽了，變了大豬，拱開舊路。我師父騎在馬上，我等扶持着，管情過去了。”八戒聞言道：“哥哥，你們都要圖個干淨，怎麼獨教老豬出臭？”三藏道：“悟空，你果有本事拱開衙衙，領我過山，注你這場頭功。”……八戒滿心歡喜，脫了皂直裰，丟了九齒耙，對衆道：“休笑話，看老豬這場臭功。”好呆子，捻着訣，搖身一變，果然變做一個大豬。)19)

손오공은 저팔계가 이렇게 변신한 것을 보고, 전송 나온 마을 사람들을 시켜 마른 양식 등 가져온 음식을 한 곳에 모아놓게 하여 저팔계에게 배불리 먹게 했다. 멧덩구리는 날 것, 익은 것 가리지 않고 단숨에 널름널름 먹어치우더니, 곧 앞으로 나가 길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멧덩구리는 이틀을 꼬박 땅을 파헤친 터라 마침 아주 시장하던 참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칠팔 섬의 밥만 지어왔겠는가? 하지만 저팔계는 쌀밥이고 국수고 간에 모조리 쌓아 한 입에 털어 넣었다. 이렇게 한 끼를 배부르게 먹고 나서는 또 길을 파헤쳐 앞으로 나갔다. 삼장법사와 손오공, 사오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작별을 고했으니, 그 광경은 이러했다.

19) 《西遊記》, 제67회, 825쪽.

타라장 사람들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니, 저팔계는 산을 헤치고 고갯길 터서 넘어간다. …(중략)…

천 년을 두고 물러 터져 쌓인 감 열매는 이제야 말끔히 사라지고, 칠절호동 고갯길이 오늘에야 열렸다.

(駝羅莊客回家去, 八戒開山過 衢來。……

千年稀柿今朝淨, 七絕衢衢此日開。)20)

이렇게 저팔계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혼연히 혼자서 그 임무를 맡아 농민의 쇠스랑과 하늘 신선의 힘으로 형극령의 가시밭길을 쳐냈을 뿐만 아니라 칠절산의 뚱 길을 헤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해내 불경을 구하러 가는 서행 길에서 또 한 번 큰 공로를 세웠다.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많았다(沒有功勞, 也有苦勞).”는 말이 그에게 아주 적합하다. 그는 손오공의 영웅적인 성품을 뒷받침하여 즐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조수이다.

제2장. 率直하고 單純한 性格

“육정에 젖은 간담은 하늘같고 외치는 소리 천둥 같다(色如天叫似雷)”는 저팔계의 자백서이다. 암폐지의 텃줄에서 나온 자연적 속성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름다움을 논하지 않고 나이를 묻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묘이저도 좋고 약혼을 기다리는 세 딸을 둔 부인도 좋았다. 때를 못 맞춰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속성은 이미 중이 된 몸이지만 영혼과 꿈이 고로장에 가 있고 무시로 언행에 드러난다. 그는 또 걸핏하면 헤어져서 각기 제 갈 길을 가차고 주장한다. 그는 자기가 고로장에서 쫓겨 나왔다는 진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속에는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가 농사짓던 밭이 있다는 향수뿐이었다. 때문에 고로장은 그의 심중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영원한 낙원이다. 관음보살의 안배에 따라 그는 불경 구하러 가는 대오에 가입하여 공을 세워 속죄하기 때문에 낙원은 잃었으나 “몇 고향

20) 《西遊記》, 제67회, 826쪽.

밭과 소 한 마리에 아내와 자식이 한 구들(兩垧地一頭牛, 老婆孩子熱炕頭。)이란 소농계층의 가치 관념은 그가 서행 길에서 두 가지 욕망을 버리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바로 “色慾”과 “貪慾”이다.

2.1 재색을 좋아하는 저팔계

“色慾이 없어지지 않았다(色心未泯)” 라는 말이 저팔계에게 대해서는 적합하다. 제23회 “네 분의 보살이 禪心을 시험하다(四聖試禪心)”에서 저팔계의 언행을 통해 그가 여색에 현혹되는 모습을 생동적으로 그려냈는데 이 단락은 아주 재미있고 또 작중에서 심리묘사가 가장 멋지다.

하루는 날이 저무는데 저팔계는 또 손오공에게 고생스럽다고 하소연하면서 인가를 찾아 가서 쌀밥을 동냥해 먹고 원기를 회복하려 하고 있었다. 이때 저 앞에 우아한 장원이 보였다. 普賢菩薩, 文殊菩薩, 黎山老母, 南海菩薩 등 네 신선이 여기에서 모녀로 변장하고 禪心을 시험하기 위해 삼장법사 등 네 사제들을 사위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미모의 여인 넷을 보자 삼장법사는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저팔계는 주인댁이 그토록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요 또 그 딸들도 것처럼 미색이란 얘기를 듣고 보니 저도 모르게 들먹거리는 충동심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곁상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았어도 바늘방석이요, 자꾸만 비비 꼬이는 몸뚱이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꼼지락 거리던 끝에, 마침내는 벌떡 일어나 스승 앞으로 걸어 나가더니 소맷자락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했다. “사부님,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서 못 들은 척하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까? 무슨 대답이 있으셔야 할 게 아닙니까?”

(那八戒聞得這般富貴, 這般美色, 他却心痒難撓。坐在那椅子上, 一似針戳屁股, 左扭右扭的, 忍耐不住。走上前, 扯了師父一把道: “師父! 這娘子告誦你話, 你怎麼佯佯不睬? 好道也做個理會是。”)²¹⁾

21) 《西遊記》, 제23회, 287쪽.

그리고는 그 부인한테 다가가 곱실거리며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다.

“인물은 못 생겼지만 부지런해서 쓸모가 있지요. 천 경 정도의 논이라면 소를 쓸 필요도 없지요. 쇠스랑질 한 번이면 되니 씨 뿌리면 때맞추어 싹이 트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릴 수 있고 바람이 없으면 바람을 부를 수 있지요.”
(“雖然人物醜，勤緊有些功，若言千頃地，不用使牛耕。只消一頓耙，布種及時生。沒雨能求雨，無風會喚風。”)²²⁾

그는 또 삼장법사에 대해선 “제 생각에 우리 스님은 인물은 괜찮지만 사실 쓸모가 별로 없어요(唐僧人才雖俊，其實不中用.)”라고 말하면서 자기 혼자만 남게 해 달라고 물밑 작전을 폈다. 그러다가 그는 승복을 벗어버리고 미인들이 준 진주를 박은 속옷을 입었다. “하지만 허리띠를 다 매지도 않았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넘어졌다. 알고 보니 끈 몇 개가 저팔계의 몸을 단단히 묶고 있는 것이었다. 그 멩텅구리는 몸을 죄어오는 아픔을 견딜 수 없었다(還未曾繫上帶子，扑的一交，跌倒在地，原來是幾條繩緊緊纏住，那呆子疼痛難禁.)”²³⁾ 결국 그는 “말가벗고 대롱대롱 메달려서 고문당하는 사위 꼴(繃巴吊拷的女婿)”이 되었다.(제 23회)

저팔계는 이같이 조롱당하여 “다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從今後再不敢妄爲)”고 맹세까지 하였지만, 여색을 좋아하는 본성은 시종 고쳐지지 않았다. 서량여국에서 삼장법사는 여왕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전전공공하면서 바로 서지도 못하였으며(戰戰兢兢立站不住)”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했다.

여와의 아리따운 모습을 바라보니까 넋이 빠진 저팔계 녀석. 어느덧 꿈틀꿈틀 솟구쳐 오르는 음탕한 욕심을 참지 못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다. 가슴의 고동은 푹푹둑둑 두 방망이질 치고, 온몸의 뼈마디는 녹신녹신 물러터지고 맥이 탁 풀린 것이, 마치 눈사람이 모닥불을 켜 것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이다. 제 54회
(那呆子看到好處，忍不住口嘴流涎，心頭撞鹿，一時間骨軟筋麻，好便似雪獅子向火，不覺得都化去也。)²⁴⁾

22) 《西遊記》, 제 23회, 290쪽.

23) 《西遊記》, 제 23회, 293쪽.

다만 그는 艷福이 없었을 뿐이었다.

저팔계는 천상에서 嫦娥를 희롱한 죄로 인간 세상에 쫓겨 내려 왔지만 마지막 서천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천축국에서 항아를 만나서도 여전히 옛 정이 되살아나 참지 못하고 공중에 뛰어 올라 霓裳仙子를 끌어안고 집적거렸다. “누나, 누나와 나는 오랫동안 아는 사이인데 놀러나 갑시다!(姐姐, 我和你舊相識 我和你婁子兒去也。 제95회)²⁵⁾ 저팔계가 인간 세상으로 쫓겨 온 후 음탕한 마음을 고칠 수 없었기에 진짜와 가짜, 사람과 요괴를 식별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땀에 빠졌으며, 이 모든 것은 그가 불문에 귀의하려는 마음을 항상 흔들고 있었다.

사실상 저팔계의 흠아비 고통은 곧 “그림의 떡” 일 뿐이다. 실제 그는 이성문제에 대해 비교적 엄숙하며 책임감이 있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토론할 수 있다.

첫째, 잠극에서 저팔계는 남이 위급한 틈을 타서 아내를 빼앗는 것과는 다르다. 《서유기》의 저팔계는 북릉산에서 요괴로 있을 때 이성문제에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묘이저로, 저팔계가 처음 데릴사위로 들어가 맞은 부인이다. 묘이저의 생김새가 어떠한가는 작자가 지은 이름으로부터 기늬해 볼 수가 있다. 묘이저가 죽은 후 그는 관음보살과 묘이저를 되새기면서 옛 정을 잊지 못했다. 두 번째 부인은 高翠蘭인데 이는 저팔계가 두 번째로 데릴사위로 들어가 얻은 부인이다. 고씨는 스무 살까지도 여전히 혼약을 맺지 않은 아가씨였다. 고씨네 가정에서는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 암흑가의 사람한테도 딸을 주겠다고 했으니 그 딸이 얼마나 못생긴 용모를 가졌는가를 짐작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저팔계는 오히려 근면하게 일해 고취란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금은 장신구를 달게 하고 아무 때건 과일을 먹고 채소와 요리를 먹을 수 있게 하였다(身上穿的錦 戴的金 四時有花果享用, 八節有蔬菜烹煎。).”²⁶⁾ 이는 이미 그가 모범적인 남편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고태공은 스님과 도사들을 여러 차례 청하여 그를 제거해 버리려한다. 나중에 손오공을 청하여 그를 제거했지만 그는 떠나기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죽도록 그리워하였다. 여기서 그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다.

24) 《西遊記》, 제54회, 669쪽.

25) 《西遊記》, 제95회, 1176쪽.

26) 《西遊記》, 제18회, 234쪽.

둘째, 잡극에서 저팔계가 여인국에서 몰래 궁녀와 동침한 것과는 다르다. 소설에서 저팔계는 서행 길에서 “자기는 色에 굶주린 아귀(色中的餓鬼)”라고 떠들었지만, 시종 “色戒”를 범하지 않았다. 그가 보살이 변신한 부녀자에게 청혼하였지만 그건 혼인에 대한 그의 태도가 매우 진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메기로 변신하여 거미요정의 “두 다리 사이로 마구 다닌(那腿襠裏亂鑽)” 것은 굶주렸을 때 여인 앞에서 조금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이며 시신요괴가 변신한 젊은 여인에게 “음탕한 마음을 일으킨 것(動了凡心)” 역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친절함을 표시한데 불과한 것으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상대가 요괴임을 간파했었다면 이렇게 女色을 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거미요정들이 목욕하고 있는 강의 언덕에 뛰어오른 후 호통을 쳤다.

너희들 우리 사부님을 동굴에 매달아 놓고 찌먹을 요량이지? 우리 사부님을 그렇게 호락호락 찌먹을 수 있을 줄 아느냐? 어서 머리를 이리 내밀어라. 이 쇠스랑으로 하나씩 찍어 깨끗이 없애주마! 제72 회
(你把我師父吊在洞裏, 算計要蒸他受用! 我的師父又好蒸喫? 快早伸過頭來, 各筑一鉞, 教你斷根!)²⁷⁾

그리고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쇠스랑으로 요괴들을 마구 내리찍은 부분이 가장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이 저팔계가 여인을 좋아한다는 것은 여인에 대한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며, 사랑은 하면서도 짝은 맺을 수 없고 또 그것을 스스로 알고 떠나야 하니 어찌 난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편 여인 문제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 대업과 관계될 때, 그는 간혹 “여인을 사랑하지 않고 강산을 사랑한다.”는 영웅본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그는 여인에 대해 비교적 엄숙하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본분을 지킨다. 이는 돼지의 성격을 가진 저팔계로 말할 때, 진실로 소중한 점이 아닐 수 없다.

저팔계가 “재물에 너무 탐욕스럽다(財貨心重)”는 말은 결코 그에게 죄를 뒤집

27) 《西遊記》, 제72회, 886쪽.

어썩우는 말이 아니다. 그가 너무나 탐욕스럽기 때문에 서천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 차례나 위협에 봉착하고 망신을 당한다. 오계국에 갔을 때 손오공은 그더러 국왕의 시신을 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이용하여 건수가 하나 있다고 그를 속인다. 저팔계는 달콤히 자고 있다가 보물을 훔치러 간다고 하니 별떡 정신을 차렸다. 그는 또 특히 손오공에게 당부했다.

한데 솔직히 말해서 형님한테 말해둘 것이 하나 있소. 보배를 훔쳐내고 요괴를 항복시켰다고 해서 내가 뭐 단작스럽게 모든 공로를 내 몫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배 하나만큼은 내가 가지기로 하겠소 제38 회
(我也與你講個明白：偷了寶貝，降了妖精，我却不要煩甚麼小家罕氣的分寶貝，我就要了。)28)

그는 혼자서 보물을 독차지 할 궁리를 하면서 손오공과 함께 파초나무 밑에 왔는데 결국은 동전 한 푼 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득불 손오공의 계획에 따라 우물 밑의 水晶宮으로 들어가 오계국왕의 시신을 지고 나왔다.

獅駝嶺에서 저팔계는 손오공의 속임수에 넘어가 새끼줄을 허리에 감고 나가 싸우다가 새끼줄을 놓아버리는 통에 요괴에게 붙잡혔다. 요괴를 물리치고 저팔계를 구원하는 싸움이 긴박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작자는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저팔계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저팔계가 연못에 빠져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손오공은 자그마한 벌레로 변신하여 날아 들어가 염라대왕이 보낸 勾司人으로 가장하고 저팔계를 잡아가려한다. 저팔계는 하루만 봐주고 내일 잡아가라고 애원한다.

손오공은 속으로 빙긋 웃고 나서 “할 수 없군. 내 장부에 서른 명의 이름이 있는데, 전부 이 근방에 있는 자들이지. 내가 그들을 다 잡아서 다시 오려면 하루가 걸리는데 말이야. 어디 노잣돈이라도 있으면 좀 내 놓지 그래?” “아이고! 출가한 몸이 무슨 노잣돈이 있습니까?” “노잣돈이 없다면 묶어서 데려가야지! 나랑 같이 가자고!” 저팔계가 황급히 말했다. “어르신, 목지 마세요. 저도 어르신의 이 줄이 “목숨을 가져가는 追命繩”이란 건압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 어서 내놓아라!” “아이고,

28) 《西遊記》, 제38회, 469쪽.

아이고! 제가 중이 된 후 지금까지 공양을 줄 때 신심 깊은 사람이 제 밥통이 큰 걸 보고는 보신통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줬지요. 전 그걸 여기에 모아두었는데, 자잘한 조각들이 은전 닷 냥이 되자 간수하기 불편해서 지난번에 성안에서 은세공장이더러 한 데 녹여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놈이 양심도 없이 몇 푼을 떼어먹어 닷 냥 여섯 푼짜리가 되었습니다. 가져가지지요.” 손오공은 또 슬며시 웃으며 물었다. “너 멧덩구리 녀석은 바지도 안 입었는데 어디에 숨겼담? 이봐! 그래 네 은전은 어디 있느냐?” “제 왼쪽 귓구멍 속에 넣어놓았지요. 전 묶여 있어 꺼낼 수가 없으니 저승사자님이 직접 꺼내 가시오.” 제 76회

(行者暗笑道：“也罷，我這批上，有三十個人，都在這中前後。等我拘將來就你，便有一日耽擱。你可有盤纏，把些兒我去。”八戒道：“可憐啊！出家人那裏有甚麼盤纏？”行者道：“若無盤纏，索了去！跟着我走！”呆子慌了道：“長官不要索。我曉得你這繩兒叫做‘追命繩’，索上就要斷氣。有！有！有！有便有些兒，只是不多。”行者道：“在那裏，快拿出來！”八戒道：“可憐，可憐！我自做了和尚到如今，有些善信的人家齋僧，見我食腸大，襯錢比他們略多些兒。我拿了攢在這裏，零零碎碎有五錢銀子。因不好收拾，前者到城中，央了個銀匠，煎在一處。他又沒天理，偷了我幾分，只得四錢六分一塊。你拿了去罷。”行者暗笑道：“這呆子，袴子也沒得穿，却藏在何處？咄！你銀子在那裏？”八戒道：“在我左耳朵眼裏摠着哩。我捆了，拿不得，你自家拿了去吧。”29)

저팔계는 죽음을 앞두고도 쉽사리 돈을 팔아 목숨을 사려하지 않는다. 그는 수전노로서 이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니 정말 극치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도 고난이 첩첩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서 그가 뜻밖에도 용돈(私房錢)을 모았다는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고락을 함께 하는 집단에서 불 때 이런 행위는 분명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저팔계는 확실히 좀 탐욕스럽다. 그는 고가장을 떠나게 될 때 장인한테서 이득을 챙겨 한 결레의 새 신과 옷 한 벌을 얻었다. 그 후 서행 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 하면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재물을 줄 때마다 그는 빠뜨리지 않고 몽땅 받아두었다. 金平府에서 등불 구경을 할 때 저팔계는 손오공한테서 삼장법사를 납치해 간 요괴가 犀牛精이란 말을 듣고 “만약 물소라면 잡아다 뿔을 자르면 은 닷 냥은 죽히 되겠군요!(若是犀牛，且拿住他，鋸下角來，倒值好幾

29) 《西遊記》, 935쪽.

兩銀子哩!)”³⁰⁾라고 한다. 布金禪寺에 갔을 때는 삼장법사한테서 이전에 捨衛城의 太子가 황금벽돌로 바닥을 깔고 부처님을 모셔다 불법을 전수하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그곳에 가서 황금벽돌을 도둑질하여 인사를 내리라也(去摸他塊把磚兒送人)”³¹⁾고 궁리하였다.

바로 色과 재물이란 이 두 가지 욕망 때문에 저팔계는 어느 집에서 사위를 삼는다고만 하면 곧 데릴사위가 되려고 생각한다. “네 신선이 선심을 시험하다(四聖試禪心)”의 재난이 바로 이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다. 하지만 서행 길에서 중인 저팔계의 이 두 가지 욕망은 늘 저지당한다. 이는 그로 하여금 특별히 고로장을 그리워하게 한다. 그가 불가에 귀의할 때 고태공에게 한 말이 있다.

장인이어른, 저의 아내를 잘 보살펴 주세요. 우리가 佛經을 구해 오지 못한다면 다시 환속하여 다시 당신의 사위노릇을 하면서 살겠어요.

(丈人阿, 你還好生待我渾家: 只怕我們取不成經時, 好來還俗, 照舊與你做女婿過活。) ³²⁾

불경을 구하러 서행 길을 나서는 것과 고로장에 돌아오는 것, 속세를 벗어나는 것과 환속하는 것, 이 두 가지 이념은 그의 마음속에서 늘 겨루게 된다. 그가 제일 겁내는 것은 바로 “중질도 잘 못하고 아내도 얻지 못하여 두 가지를 다 이루하지 못하는(和尚誤了做, 老婆誤了娶, 兩下都耽擱了。)” 처지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저팔계의 품성은 본래 소박하고 고지식하여, 일단 불문에 귀의하였기 때문에 불경을 구하려는 뜻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때문에 그의 여색을 즐기는 행위가 일종의 본능적이고도 이념적인 것으로 국한되고 일종의 어쩔 수 없는 정서와 녀두리에 그치고 만다. 그의 재물에 대한 탐욕 또한 겨우 동냥하여 얻은 시주를 아끼고 남기는 정도이며, 그것도 밥을 먹고 옷을 해 입고 고로장에 돌아가 세속의 나날을 보내기 위해서이다. 아니면 저팔계의 재물을 탐내고 여색을 즐기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응당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30) 《西遊記》, 1127쪽.

31) 《西遊記》, 1147쪽.

32) 《西遊記》, 244쪽.

2.2 진솔하고 순박한 저팔계

궂구멍에 넣은 돈 여섯 푼의 사건을 감춘 세부적인 묘사에서 저팔계는 충분히 탐욕스런 인간이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저팔계에 대해 “여태껏 요괴의 성질과 탐욕스런 마음을 고치지 않은 놈(從未改妖性與貪心的家伙)”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한 것이다. 고가장을 떠날 때 삼장법사가 저팔계의 장인이 주는 이백 량의 금 부스러기와 은을 사절하였을 때에도 그는 한 마디 원망도 없었고, 그 후의 서행 길에서도 일행은 허다한 돈을 벌고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요괴의 소굴을 소탕하고 백성들을 위해 해를 제거했을 때나 국왕을 위해 재난을 제거하고 걱정을 풀어주고 병을 치료해 주었을 때는 모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저팔계는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재물, 진주보석을 챙기지 않고 하필이면 부스러기 푼돈을 챙기려 했을까? 저팔계를 진정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의 “貪”이라는 표현 뒤에 “군자는 재물을 즐기지만 취하는 데는 길이 있다. 나와 너의 것을 똑똑히 가리고 나에게 속하는 것은 한 푼도 양보하지 않으며 조심하여 소중히 간사한다.”는 철칙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54회 “혼인을 빌미로 여인국에서 벗어나다(假親脫網計)”에서 손오공은 삼장법사더러 가짜로 서량국의 여왕의 칭혼을 받아드리게 하고 통관문서에 도장을 받았다. 형제 셋이 여왕과 작별하고 길을 떠날 때 여왕은 금은 부스러기 한 쟁반, 능라 비단 열 필을 하사했으나 손오공은 사절했다.

여왕은 옷감마저 거절당하자, 할 수 없이 御米 석 되를 내오라 하여 올렸다. “그럼 과인이 식사할 때 밥 짓는 쌀 석 되나 받으셔서 도중에 진지한 끼라도 지어 드시지요.” 그러자 먹보 저팔계 녀석이 밥이란 소리를 듣더니 냉큼 받아서 보따리 속에 챙겨넣는다. 손오공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나무랐다. “이 사람이, 지금도 짐보따리가 무거운데 힘들여 쌀까지 떠메고 가서 뭘 하려나?” 저팔계는 껄껄대고 웃었다. “형님이 뭘 아신다고 그러시오? 쌀이 좋은 것은 날마다 없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이래요. 한 끼 밥을 지어먹기만 해도 바닥나고

말 것이 아니겠소?’ 이런 말로 대거리를 하더니 여왕 앞에 녀살 좋게 합장하고 사례를 한다. 제54회

(女王見他不受, 教: “取御米三升, 在路權爲一飯。”八戒聽說個“飯”字, 便就接了, 揷在包袱之間。行者道: “兄弟, 行李見今沉重, 且倒有力氣挑米?”八戒笑道: “你那裏知道, 米好的是個日消貨, 只消一頓飯, 就了帳也。”遂此合掌謝恩。)33)

저팔계는 금은, 능라 비단에는 손을 내밀어 받지 않았으나 밥통이 컷기에 쌀 세말은 받아 붓짐 가운데 었었는데 이를 일컬어 저팔계가 재물을 탐낸다고 할 수 있는가?

제67회 저팔계는 손오공을 도와 타라장을 위해 蛇怪를 소멸하고 또 혼자서 구려나가가 물씬 풍기는 팔백리 희시동을 쳐내고 그곳의 백성들을 위하여 널찍한 길을 닦았다. 저팔계는 수고스럽게 일한 대가로 근근이 몇 끼의 밥을 배불리 먹었을 뿐이며 사후에 이득을 본 마을에 한 푼 어치의 재물도 강요하지 않았다. 이것도 저팔계가 어떤 물건을 탐냈다고 할 수는 없겠다.

제90회 불경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천축국의 華城 국왕을 위해 獅魔를 물리치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세 왕자에게 무예를 가르쳐 준 장면을 보자.

왕자들은 또다시 잔치를 크게 베풀어 스승의 가르침에 사례했다. 그리고 금은을 한 쟁반 가득 꺼내다 약소하나마 정표로 보답했다. 손오공은 꺾꺾대고 웃으며 이를 사양했다. “어서 도로 들여가시오! 어서 들여가시오! 우리같이 출가한 사람들에게 준들 그걸 받아서 무엇에 쓰겠소?” 곁에서 저팔계가 한마디 덧붙인다. “금이나 은 같은 것은 사실 받을 수 없소. 그러나 내 이 옷가지가 사자 요괴의 발톱 이빨에 갈기갈기 찢겨버렸으니, 옷이나 한번 갈아 입게 해주시던 끔찍하게 고마워하리다.” 제90회

(那王子大開筵宴, 謝了師教, 又取出一大盤金銀, 用答微情。行者笑道: “快拿進去! 快拿進去! 我們出家人, 要他何用?”八戒在旁道: “金銀實不敢受, 奈何我這件衣服, 被那些獅子精拉破了, 但與我們換件衣服, 足爲愛也。”)34)

저팔계는 이렇게 옷만 바꿔 입겠다고 요구하는 솔직한 사람인데 어찌 재물을

33) 《西遊記》, 제54회, 672쪽.
34) 《西遊記》, 제90회, 1114쪽.

탐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92회 金平府에서 손오공과 저팔계 형제는 犀牛요괴에게 전승을 거두고 동굴을 깨끗이 털어내고 불을 지른 후 요괴 동굴에서 가져 온 보물들을 조금씩 소매 속에 넣어두었다가 초대해준 집마다 사례했다. 원래 저팔계가 재물을 줌 거두어 둔 목적은 각지 백성들의 지성 어린 대접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지,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사례하는 행위와 동기는 재물을 탐한다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제95회 손오공과 저팔계는 천축국을 위해 옥토끼요정의 항복을 받은 후 진짜 공주를 국왕에게 돌려주었다. 국왕은 그들을 억지로 머무르게 할 수 없어, 마침내 “금은 이백 덩어리와 보물 한 쟁반을 꺼내다가 감사의 뜻으로 주었다. 하지만 삼장 법사 일행은 조금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遂取金銀二百錠, 寶貝各一盤奉謝, 師徒們一毫所受.)³⁵⁾” 금을 받지 않은 네 일행 중에는 당연히 저팔계도 들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저팔계가 재물을 탐낸다는 죄명을 쓰게 된 하나의 사건은 그 녀크 돈 여섯 푼의 은전이다. 이에 관한 내재된 의미를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가? 손오공이 저팔계가 私錢을 모은다고 책망할 때, 저팔계가 한 말을 예로 들어 보자.

벌어먹을! 이게 무슨 딴 주머니야? 이게 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겨우겨우 모은 거라고. 먹을 거 하나 못 사먹으면서 나중에 옷감 한 필 끊어다가 옷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형님이 어르는 통에 깜짝 놀랐잖아요? 내 뭇도 좀 남겨 줘요. 제 76회

(嘴臉! 這是甚麼私房! 都是牙齒上刮下來的, 我不捨得買了嘴喫, 留了買布匹兒, 做件衣服, 你却嚇了我的! 還分些兒與我.)³⁶⁾

저팔계의 전후 자백을 훑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혀낼 수 있다. 첫째, 그의 보잘 것 없는 은 부스러기는 탐욕스럽게 얻은 것이 아니고 마음씨 고운 집에서 그를 구제하기 위해 준 돈을 아껴 쓰면서 절약하여 모은 돈이다. 둘째, 그 액수가 적기로는 그간 사절한 사례비에 비하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약 저팔계

35) 《西遊記》, 제95회, 1179쪽.

36) 《西遊記》, 제76회, 936쪽.

를 탐욕스럽다고 한다면 그가 무엇 때문에 큰 돈을 챙기지 않고 가장 적은 이익만 탐내는가?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다. 셋째, 그가 이 보잘 것 없는 돈을 모아 둔 것은 재물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만 웃을 해 입기 위한 것이었다.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서 머슴으로 나선 그는 특히 웃이 쉽게 해진다. 만약 자신이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웃을 걱정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결국 이렇게 귀중한 돈이지만 장난꾸러기 손오공은 남의 위급한 기회를 잡아 저팔계의 돈을 빼앗는다. 저팔계가 선임을 받는 행위는 어딘가 영예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저팔계의 처지는 여하튼 사람들의 연민과 괴로움을 자아낸다.

만약 손오공과 사오정처럼 본래부터 인생의 주색과 재운에 별로 큰 관심이 없다면 사욕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다정다감하고 욕심이 많은 사나이인 저팔계는 장장 십사 년이란 기간 동안 그렇게도 많은 聲色財寶의 유혹 앞에서 결국은 자신을 억제하고 절개를 지켜냈으며 정과를 이룩하였다. 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팔계처럼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일반인들이 그를 세세히 체득하고 이해하며 너그럽게 대해주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제3장. 奇拔하고 諧謔的인 性格

《서유기》에 등장하는 저팔계는 다각적인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인물이다. 그의 생김새, 말, 일거수일투족 등이 모두 흥미를 끈다. 그가 흥미진진한 인물이 된 것은 겉보기에 멍청하고 손발이 굵뜨기 때문이요 또한 슬기롭고 낙관적이며 익살스럽고 해학적이기 때문이다. 저팔계가 등장하는 곳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불경을 구하러 서천으로 가는 험준하고도 머나먼 노정에서 만약 저팔계란 인물이 나타나 웃음과 즐거움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면 삼장법사 일행은 아마 울적하고 답답한 길을 걸어야 했을 것이다. 저팔계의 순박하고 정직함은 사

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명칭한 척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웃기며 또한 손뼉 치며 웃어대는 가운데서 저팔계의 슬기와 풍채를 한층 더 느낄 수 있다. 저팔계의 어리석음과 슬기에 대해 살펴보자.

3.1 바보 같은 저팔계

멍텅구리와 어리석은 놈은 소설에서 저팔계에 대한 雅稱이다. 손오공이 이 두 가지 이름의 발명자이다. 손오공이 당시 고로장에서 저팔계를 항복시켜 받아들일 때 걸핏하면 “멍텅구리(呆子)”, “어리석은 놈(夯貨)”이라고 불렀다. 그 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점잖은 삼장법사마저 간혹 이런 호칭으로 불렀다.

저팔계에 대한 이러한 호칭 어딘가 좀 우아하지 못한 느낌이 있지만 그의 자태와 용모, 개성에 견주어보면 아주 적절하다. 저팔계가 둔하다고 하는 것은 주로 그의 용모로부터 나온 말이다. 저팔계는 하계에 내려와 환생할 때 긴 주둥이, 커다란 귀와 뚱뚱한 몸매를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네댓 말의 쌀밥(三五斗米飯)”을 먹을 수 있는 밥통과 손에 든 아홉 개의 쇠못이 박힌 쇠스랑은 저팔계가 철두철미하게 둔한 사람임을 나타낸다.

저팔계가 멍청하다는 것은 주로 그의 정신적인 면모를 보고 말하는 것이다. 저팔계의 어리석음은 그의 깔끔하지 못한 외모와 딱 들어맞는다. 심지어 그를 가장 잘 보살피는 삼장법사마저 그를 “두 귀가 눈을 가려 어리석고 못난 사람(兩個耳朵蓋着眼, 愚拙之人也.)”이라고 말한다. 저팔계의 어리석고 고지식함은 두 가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문제이다. 그를 어리석다고 말할 때 그의 고지식한 면모를 빼 놓을 수 없고, 그를 고지식하다고 말할 때 그의 어리석은 면모를 빼 놓을 수 없다.

저팔계는 《서유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이다. 그도 광대한神通력이 있어 손오공의 마음에 드는 조수이다. 물론 저팔계는 손오공처럼 아주 뛰어난 영웅이 아니다. 도리어 그는 극히 희극적인 “보통 인물”이다. 그 때문에 저팔계의 신

통력은 언제나 그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으로 연계되어 있다. 저팔계의 간판인 아홉 날 쇠스랑은 太上老君이 친히 큰 망치로 두드려 만들고 옥황상제가 내어준 것으로서 “치켜들면 불꽃과 환한 빛을 발하고 내리면 거센 바람 불어 상서로운 눈발 휘날리지(擧起烈焰並毫光, 落下猛風飄瑞雪。 제19회)³⁷⁾” 라는 묘사로부터 볼 때 보배임이 확실하다. 저팔계의 말대로 하면 이 오천 공 마흔여덟 근이나 되는 쇠스랑은 능히 그의 몸에 따라 마음대로 변화한다고 하지만 소설에서 저팔계가 언제나 쇠스랑을 끈게 펴고 다니는 것을 보면 쇠스랑이 많이 변화하더라도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작게 만들어 귀 구멍에 넣어 둘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아홉 날 쇠스랑의 위력이 그 얼마나 크고, 그 내력이 아무리 눈부시더라도 이 무기는 외형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농민들이 농사에 쓰는 갈퀴를 연상하게 한다. 손오공이 저팔계한테 물은 적이 있다. “네 놈의 이 쇠스랑은 고씨 집안에서 집 짓고 밭가는 데 쓰던 게 아니냐(你這鋤可是與高老家做園工築地種菜的)?³⁸⁾” 銀角大王도 저팔계를 보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중놈은 도중에 출가한 녀석이군(這和尚是半路出家的。), “쇠스랑을 쓸 줄 아는 걸 보니 분명 남의 집 밭에서 땅이나 갈다가 훔쳐가지고 나온 것이려다(你會使這鋤, 一定是在人家園圃中築地, 把他偷將來也。 제 32회)³⁹⁾” 이와 같이 채소 농사를 지을 때 갈퀴를 사용하는 일은 이치에 맞는 것이다. 하지만 갈퀴를 무기로 삼아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둔해 보인다. 평소에 농사를 짓던 쇠스랑이 불시에 저팔계의 호신용 병기가 되었으니, 여기에는 말하기 어려운 어리석음과 솔직함이 내포되어 있다. 이로부터 인물의 희극적인 색채가 첨가되었다. 생각해 보자. 저팔계가 쇠스랑을 들고 싸움판에 나서는 것이 검이나 칼을 들고 나서는 것보다 더 희극적이 아닐까?

서른여섯 가지 변신술은 저팔계의 신통력이다. 하지만 그는 변하면 변할수록 더 민첩하고 교묘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멍청하고 둔해진다. 손오공의 변화는 영기로 충만되어 작은 벌레, 작은 새, 서생, 아이 등으로 마음대로 변할 수 있고 무엇으로 변해도 신통하지만 저팔계의 변화는 언제나 거칠고 우둔하고 무거운 물건과

37) 《西遊記》, 제19회, 240쪽

38) 《西遊記》, 제19회, 239쪽.

39) 《西遊記》, 제32회, 404쪽.

연계되어 있어 산이나 나무, 돌덩이, 흙더미나 코끼리, 암돼지, 물소, 낙타 등 대단히 거대한 물건으로 변신하는 것이 그의 제일 좋은 재간이다. 이렇게 그는 민첩하고 교묘한 물건으로는 변신할 수 없다. 진가장에서 그는 처녀로 변신하려고 갖은 술법을 다 써 몇 번이고 몸을 흔들고 “변하라!”하고 외쳤지만 얼굴만 변신했을 뿐 몸뚱이는 어떻게 해도 변신하지 못했다. 마지막에 손오공의 도움으로 비로소 비속하게 변신할 수 있었다. 저팔계는 天界에서 하계로 내려와 환생할 때부터 모양새, 언사,神通력 등 方面에서 천부적인 명칭한 속성을 가졌고, 그가 쓰는 병기마저도 육중하고 우둔한 것이다.

똑똑한 척할 때의 미련스러움이나 어리석음에는 솔직하고 순박한 일면이 있다. 한편 중국민속에서는 어리석음이 좋은 품성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저팔계는 못사람들이 즐기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당당한 저팔계는 천부적으로 커다란 귀를 가졌으니 그 자신마저도 아주 난감해 하였다. 저팔계의 인생길은 이 때문에 불행과 파란으로 가득하다. 고씨네 집에서는 그가 “밭을 갈아도 소나 도구를 쓰지 않고 곡식을 거두어 들여도 낫을 쓰지 않는 줄을 알지만(耕田耙地 不用牛具; 收割田禾, 不用刀杖。) 40) 결국은 그의 용모와 명칭한 외모 때문에 혼사를 취소하고, 저팔계가 자청했지만 서량녀국의 太師도 자기의 왕을 위해 중매를 서려 하지 않은 것도 모두가 저팔계의 용모와 명칭한 외모 때문이었다. 손오공이 심심풀이로 그를 걸핏하면 “멍청이야!, 멧렁구리야!”하고 부르는 것도 모두 그의 용모 때문이다. 때문에 “멍렁구리”가 민간에서는 비록 친근함이 다분한 칭호라고는 하지만 저팔계는 이를 몹시 꺼린다. 그리하여 그는 언제나 자신의 총명함과 유용함, 명칭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로부터 희극이 펼쳐지게 된다.

그는 손오공의 야박한 언행에 대해 늘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처함으로써 자기도 담대하고 총명한 사람임을 표현하려고 한다. 첫째는 욕설을 퍼붓는 것이다. 손오공은 羊力大仙과 끓는 기름 기마에 들어가 목욕하는 시합에게 저팔계를 줄에 꿰뚫어 묶이게 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볼까 하고 생각하고는 갑자기 잠수하더니, 기름 기마 바닥으로 내려가 대추씨만한 몸으로 변해서 다시 떠올랐다. 국왕은 손오공이

40) 《西遊記》, 제18회, 231쪽.

죽은 줄 알고 저팔계를 오라로 묶어 기름 가마에 넣으라고 했다. 저팔계는 땅바닥에 묶인 채 씩씩거리며 외쳤다.

화근만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원숭이! 무지막지한 필마온 녀석! 골백번 죽어 마땅한 몫쓸 놈의 원숭이! 기름에 튀겨진 필마온, 말몰이꾼 원숭이 놈아! 너도 이제 끝장났구나! 필마온 녀석도 밭천이 다 드러나서 자빠져 죽었구나! 제46회 (鬧禍的潑猴子, 無知的弼馬溫! 該死的潑猴子, 油烹的弼馬溫! 猴子了帳, 馬溫斷根!)⁴¹⁾

필마온을 “무지”하다고 함은 자기의 고명함을 뜻하는 것이요, 또 아예 이 겨루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고 기름 가마에서 목욕한다는 일이 어디 될 소리가 하는 뜻이다. 둘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제32회에서 손오공은 앞길에 요괴가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저팔계를 시켜 산을 순찰하게 한다. 저팔계는 게으름을 부리면서 한 잠 실컷 자고 나서 거짓말을 한다.

사실 멍텅구리 저팔계는 그 돌을 삼장법사, 사오정, 손오공 이 세 사람으로 삼아 연습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말했다. “이제 돌아가서 사부님을 뵈고 요괴가 있더냐 하고 물으시면 있다고 해야지. 무슨 산이더냐 하면? 진흙으로 만든 거다, 흙으로 만든 거다, 주석으로 두드려 만든 거다, 구리를 녹여 부은 거다, 밀가루를 찌서 만든 거다, 종이를 말라 만든 거다, 붓으로 그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날 명칭이 취급하겠지? 이런 말은 한 마디라도 병긋했다간 그냥 바보 되는 거니까, 그저 돌산이라고만 말하는 거야. 무슨 동굴이더냐고 물으면? 그냥 돌 동굴이라고만 해야지. 무슨 문이더냐 물으면? 못을 땅땅 박은 쇠문이라고 하는 거야. 안이 얼마나 깊더냐고 물으면? 문을 세 겹 지나야 한다고 해야지. 꼬치꼬치 더 캐물어 문에 못이 몇 개냐 라고 하면? 그냥 내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지 뭐. 이만하면 적당히 잘 꾸며댄 셈이니, 이제 저 필마온 녀석을 속여먹으러 가자.” 제 32회

(原來那呆子把石頭當着唐僧、沙僧、行者三人, 朝着他演習哩。他道: “我這回去, 見了師父, 若問有妖怪, 就說有妖怪。他問甚麼山, ——我若說是泥捏的, 土做的, 錫打的, 銅鑄的, 面蒸的, 紙糊的, 筆畫的, 他們見我說呆哩, 若講這話, 一發說呆了。我只說是石頭山。他問甚麼洞, 也只說是石頭洞。他問甚麼門, 也只說是石頭洞。他問甚麼門, 却說是釘釘的鐵叶門。他問裏邊有

41) 《西遊記》, 제46회, 576쪽.

多遠，只說是入門有三層。——十分再搜尋，問門上釘子多少，只說老豬心忙記不真。此間編造停當，哄那弼馬溫去！”⁴²⁾

이 멧덩구리는 거짓말을 다 꾸미고는 쇠스랑을 질질 끌며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 놈은 자기가 꾸민 얘기를 잊을까봐 고개를 숙이고 입으로 중얼중얼 연습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오공이 작은 벌레로 변신해서 귀 뒤에 숨어 그 얘길 다 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팔계가 삼장법사 앞에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며대다가 손오공한테 들킨 후 사람들은 그저 배를 끌어안고 한바탕 웃고 만다. 하지만 웃고 난 뒤 사람들은 저팔계가 우둔하여 거짓말도 연습해야 하니 이는 그가 솔직하고 무뎠하여 사람을 잘 속이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셋째는 삼장법사를 꼬드겨 緊箍咒를 씌게 하는 것이다. 제38회에서 손오공은 우물 밑에 보물이 있다는 말로 저팔계를 얼려 우물 용왕한테서 가서 오계국 국왕의 시신을 업어 내오게 하였다. 이 멧덩구리는 그 말을 듣고 시체를 업어 내온 후 화가 나서 보복할 계책을 몰래 세웠다. “원숭이 녀석이 나를 가지고 놀았겠다? 절에 달기만 해봐라, 내가 실컷 갖고 놀아주마! 사부님을 부추겨서 손오공더러 시체를 저승에 못 가고 이승에서 살려내라고 해야지. 살려내지 못하면 긴고아주를 외우라고 하는 거야. 저 원숭이 놈의 꼴을 다 쥐어짜 놔야 내 맘이 후련하겠다.” 저팔계는 삼장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님이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하면 긴고아주를 외어 살려내라고 하세요(你只念念那話兒 管他還你一個活人.)” 삼장법사는 본래 주관이 없었으므로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삼장법사가 정말 긴고아주를 외기 시작하자, 손오공은 눈알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았다. 저팔계가 고꾸라질 듯 즐거워하며 말했다. “형님, 아이고 형님. 형님은 나를 골탕 먹일 줄만 아시고, 내가 형님을 골탕 먹일 줄은 몰랐나보네.(哥耶! 哥耶! 你只曉得捉弄我, 不曉得我也捉弄你捉弄!)”⁴³⁾ 여기서 보면 저팔계는 손오공의 앞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꾸며도 계속 지지만 삼장법사 앞에서 거짓말을 꾸미면

42) 《西遊記》, 제32회, 400-401 쪽

43) 《西遊記》, 제38회, 475-476 쪽

때 번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팔계가 지게 되는 것은 짐짓 총명한 척 꾸며낸 거짓말이 너무 형편없어 자기 밖에 속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팔계가 이기게 되는 데는 그의 두 귀가 눈을 가리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가 너무나 우둔하여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보완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가 교활하게 거짓말을 꾸며 자기가 둔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할수록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음에 폭소를 터뜨리게 되고 그의 고지식한 모습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요괴들 앞에서 저팔계는 잔꾀를 부리기 좋아한다. 그 표현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기가 기민하여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요괴를 멍텅구리로 취급한다. 이를테면 사타령을 지날 때 鵬魔王한테 잡혀 동굴로 끌려갔다. 獅鬘王이 말했다. “이놈은 소용없어(這厮沒用).” 저팔계가 이 말을 듣고 기회가 왔다고 여기고 얼른 한 마디 했다. “대왕님, 소용없는 놈은 풀어주시고 저 소용 있는 놈을 잡아들이시지요(大王, 沒用的放出去 尋那有用的捉來罷。).”⁴⁴⁾ 그 결과 요괴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멍텅구리를 거꾸로 매달아 연못가로 들고 가서 연못 한가운데 밀어 넣었다.

둘째는 자기보다 센 요괴를 만나면 다른 사람은 관계치 않고 도망쳐 버리는데, 스스로는 자신이 시국을 아는 놈이라고 자부한다. 이를테면 寶象國을 지날 때 국왕이 물었다. “豬스님, 沙스님, 두 분 가운데 어느 분이 요괴를 항복시키는데 뛰어나오(豬長老, 沙長老, 那一位善於降妖)?” 이때는 손오공이 이미 화과산으로 쫓겨간 뒤라 이미 삼장법사의 큰 제자로 승진한 그가 아마도 성씨가 豬氏라는 것을 깜짝 잊어 버렸든지, 손오공의 행세를 하며 자랑을 했다. “동녘 땅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요괴를 항복시키는 데 제일 뛰어났던 이가 바로 접니다(自從東土來此, 第一會降妖的是我。).”⁴⁵⁾

하지만 그는 황포 요괴와 여덟아홉 합 정도 치고 박고 싸우다가 점점 감당할 수 없어지고, 쇠스랑도 들기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44) 《西遊記》, 제76회, 934쪽.

45) 《西遊記》, 제29회, 361쪽.

되자 저팔계는 “동생, 자네가 잠시 저놈과 싸우고 있어. 나는 똥 좀 누고 올게(沙僧你且上前來與他鬪着, 讓老豬出恭來。).”⁴⁶⁾ 라고 말하고는 사오정도 내팽개치고 그대로 쭉대와 담쟁이덩굴, 가시나무와 칙녕쿨이 우거진 곳으로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뚫고 들어가 감히 다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사오정이 황포 요괴에게 붙잡혀 완자산 파월동으로 끌려들어 갔다(제29회). 셋째는 손오공에게 패한 요괴를 보기만 하면 곧 神威를 떨치는데, 나 말고 또 누가 천하영웅인가 라고 하는 격이다. 가장 전형적인 실례로는 朱紫國에서이다. 손오공이 근두운에서 내려와 머리가 없는 요괴를 金鑾寶殿 앞에 내치자 저팔계는 달려가 쇠스랑으로 탁 내리치고는 자신의 공로라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잔피와 우둔함이 저팔계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또 그 속에 관통되어 있는 것은 약자로서의 삶의 수단과 허영심리임을 알려주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웃는 가운데 자기의 약점을 알게 되며, 이로부터 저팔계를 이해하고 그가 잔피를 부리는 것을 심술궂은 것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그를 솔직하고 무뎠으며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3.2. 슬기로운 저팔계

저팔계도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는데 손오공과 같은 영리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경험과 본능에서 온 것이다. 서행 길에서 삼장법사 일행이 통천하에서 갈 길이 막혔을 때 저팔계가 물깊이를 탐지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저팔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강물이 얼마나 깊은지 제가 어디 한번 시험해보지요.” 삼장법사가 물었다. “오농아,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강물이 깊은지 얇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본다는 거냐?” 스승이 꾸지람을 내렸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조약돌 한 개 던져보면 알 수 있지요. ‘퐁당!’ 하고 물거품이 일면 얇은 거고, ‘퐁당!’ 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가라앉으면 깊은 겁니다.” 손오공이 그 말에 찬동하고 나섰다. “어디 한번 해보지 그래!” 미련통

46) 《西遊記》, 제29회, 364쪽.

이 저팔계는 조약돌 한 개를 집어들더니 물속을 겨냥하고 뱀다 던져보냈다. “퐁덩!” 물보라 하나 없이 잔잔한 파문에 조약돌은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을 뿐이다. 그것을 보고 저팔계는 절레절레 도리질을 해 보였다. “어이쿠 깊구나, 깊어! 너무 깊어서 건너가지 못하겠는걸!” 제 47회

(八戒道：“等我試之，看深淺如何。”三藏道：“悟能，你休亂談。水之深淺，如何試得?”八戒道：“尋一個鵝卵石，拋在當中。若是濺起水泡來，是淺；若是骨都沉下有聲，是深。”行者道：“你去試試看。”那呆子在路旁摸了一塊頑石，望水中拋去，只聽得骨都都泛起漁津，沉下水底。他道：“深！深！深！去不得!”) 47)

더없이 총명한 손오공도 생각 못한 방법을 저팔계가 어떻게 생각해 낼 수 있었을까? 꼼꼼히 생각해 보면 괴상할 것이 없다. 첫째, 저팔계는 고로장에서 몇 년간 농민으로 있었기에 생활에 관련된 것을 경험으로 익숙히 알고 있었다. 돌로 물의 깊이를 탐지하는 것은 백성들이 늘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이런 상식은 단지 불경만 보고 염불을 외우는 삼장법사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저팔계는 天河를 관장했고 8萬水軍을 장악했던 원수로서 물속의 일은 더없이 환하다.

강물이 얼어붙자 삼장법사는 노정을 어길 까봐 걱정했지만 또 저팔계가 “이 저팔계가 얼마나 많이 얼었는가 알아보겠소(等老豬試看，有多少厚薄。)”하고 제기한다. 손오공이 어떻게 시험할 것이냐고 하자 그는 “제가 쇠스랑으로 한번 내리쳐 볼게요. 내리쳐서 부서지면 얼음이 얇은 것이니 지나갈 수 없고, 꿈쩍도 하지 않으면 두껍게 언 것이니 건너가지 못할 게 뭘 있겠소(等我舉釘鉞築他一下。假若築破，就是冰薄，且不敢行；若築不動，便是冰厚，如何不行?)” 하며 결국 내려치니 “퐁! 하는 소리와 함께 아홉 개의 하얀 자국만 남았을 뿐 손이 다 저릿저릿할 정도였다(只聽扑的一聲，築了九個白迹，手也振得生疼。).” 그는 단정하여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바닥까지 얼어붙었나 보네요(去得!去得!連底都鏗住了。).” 라고 하였다. 48) 삼장법사와 제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고 얼음 위로 강을 건너가는데 저팔계는 또 예사롭지 않게 자기의 솜씨를 드러내었다.

47) 《西遊記》, 제47회, 581쪽.

48) 《西遊記》, 제48회, 597쪽.

이리하여 삼장 일행은 진씨 댁과 작별을 나누고 통천하 강변으로 달려갔다. 얼음 바다 위에 올라섰더니 말발굽이 휘청하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삼장법사는 하마터면 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사오정이 얼른 스승을 부축해 바로 앉히면서 절레절레 도리질했다. “사부님, 이래 가지고는 건너가기 어렵겠는데요.” 그러자 저팔계가 얼른 나섰다. “가만계십시오! 진씨 노인 댁에 가서 짚단을 조금 얻어다가 싸아겠습니다.” “짚단은 가져다 어디에 쓰려나?” 손오공이 물었더니, 미련통이는 제법 자신 있게 대꾸했다. “형님이야 뭘 아시겠소? 짚으로 말발굽을 싸서 묶어주면 미끄러지지 않을 게 아니오? 그래야 사부님도 낙마를 모면하실 거요.” …중략…

강변에 서서 끝까지 지켜보던 진씨 댁 노인들도 그제야 마음이 놓여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얼음판을 조심스레 밟고 3, 4리쯤 걸어나갔을 때, 저팔계가 들고 있던 구환석장을 스승에게 불쑥 내밀었다. “사부님, 말 위에서 이 지팡이를 가로 들고 가십시오!” 손오공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꾸지람부터 내렸다. “이 바보 천치 녀석이 또 무슨 농간을 부리는 거야? 그 지팡이는 애당초 내가 떠매고 가기로 된 것인데, 어째서 사부님이 들고 가시게 하는 거냐?” 저팔계가 억울하다는 듯이 툭툭거리며 설명해주었다. “형님은 얼음판 위를 걸어본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거요. 얼음판에는 어디에나 숨구멍이라고 해서 갈라진 틈이 있기 일쑤란 말이요. 만약 이 갈라진 틈을 자칫 잘못 디더서 빠졌을 때, 무엇이든지 가로지른 물건이 없다면 그대로 물속에 풍덩 빠져들어간 채 두 번 다시 떠올지 못할 게 아니겠소? 일단 얼음장 밑으로 들어가는 날이면 마치 냄비 솔에 뚜껑을 덮은 것처럼 도저히 솟구쳐 오를 방법도, 헤어나올 도리도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기다란 물건을 가로질러서 들고 가야만 빠져들지 않고 걸리게 되는 거요.” 제 48회

(遂此相向而別，徑至河邊冰上。那馬蹄滑了一滑，險些兒把三藏跌下馬來。沙僧道：“師父，難行！”八戒道：“且住！問陳老官討個稻草來我用。”行者道：“要稻草何用？”八戒道：“你那裏得知？要稻草包着馬蹄，方才不滑，免教跌下師父來也。”……別陳老，離河邊，行有三四裏遠近，八戒把九環錫杖遞與唐僧道：“師父，你橫此在馬上。”行者道：“這呆子奸詐！錫杖原是你挑的，如何又叫師父拿着？”八戒道：“你不曾走過冰凌，不曉得！凡是冰凍之上，必灑有凌眼；倘或着凌眼，脫將下去，若沒橫擔之物，骨都的落水，就如一個大鍋蓋蓋住，如何站得上來！須是如此架住方可。”)49)

이런 몇 가지 에피소드와 앞의 문장에서처럼 저팔계가 돌로 물깊이를 알아보는 상황은 모두 일반 사람들의 생활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저팔

49) 《西遊記》, 제48회, 598쪽.

계가 이전에 농민과 水兵元帥의 신분이었던 것과는 어울린다. 아울러 이런 일상생활 속의 경험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에서 온 것이기에 언제나 구름을 타고 안개를 몰고 다니는 손오공도 모르고 있다.

제4장 誠心誠意 禮佛하는 性格

저팔계는 불경을 구하러 가는 대열에 참여하기 전에 데릴사위로 고로장에 있었다. 고씨 가문의 사위로서 요괴라기보다는 일 잘하는 평범한 농군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장인 고태공이 그가 못생기고 식사량이 많다고 싫어했지만 그는 “일단 집에 들어오면 얌전하고 부지런했다. 논밭을 갈 때는 소나 연장도 쓰지 않고 곡식을 거둬들일 때도 칼이나 낫을 쓰지 않았다. 어두울 때 나가서 밭을 때 들어오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다.(一進門時, 倒也勤謹: 耕田耙地, 不用牛具; 收割田禾, 不用刀杖. 昏去明來, 其實也好.)”⁵⁰⁾ 고 인정한다. 저팔계는 낮에는 근면하게 일했고, 저녁에 돌아오면 가사를 잘 돌보면서 날마다 사랑하는 여인의 곁에 있었다. 그의 생활내용과 목표는 이른바 “10무의 땅, 소 한 마리, 아내와 자식 및 따듯한 온돌이었다.(十畝地, 一頭牛, 老婆孩子熱炕頭.)” 자급자족하고 편안한 생활에 만족하는 전통적인 농민의 전형적인 특징이 저팔계의 몸에 남김없이 구현되었다. 이처럼 세속생활을 사랑하는 속세 사람으로 하여금 불경을 구하러 가는 중이 되라고 하니 어찌 고로장을 가슴속에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저팔계는 삼장법사를 따라 서행 길에 오른 뒤에도 걸핏하면 짐을 나누고 흠어지자고 떠들며 다시 고로장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만은 그저 불만에 그쳤을 뿐이다. 요컨대 저팔계의 집단주의사상과 단체정신이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는 사부를 보호하고 불경을 구하는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수없이 고생을 했다. 저팔계의 예불하는 마음과 불경을 구하려

50) 《西遊記》, 제18회, 231쪽.

는 의지도 굳세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첫 번째 그가 자기를 불경을 구하러 가는데 참기하여 공으로 죄를 속죄하게 한 관음보살을 항상 마음에 두고 여러 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한 것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는 포로가 되어 생사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정의롭고 늠름하였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장부의 기개를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다. 불경을 구하러 가는 중인 저팔계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4.1 우왕좌왕하는 저팔계

일찍이 고로장에서 삼장법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길을 떠날 즈음에 저팔계는 고태공에게 불경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올 경우 다시 와서 사위 노릇을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어쩌다가 일이 잘못되어 중도 못 되고 마누라도 얻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어쩌나하는 것이 바로 저팔계가 걱정하는 문제이다. 저팔계도 손오공의 화과산에 가본 적이 있었다. 없는 것이 없는 장면을 보고 부러워하며 중얼거렸다. “만약 이 몸에게 이런 산장이 있다면 중노릇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若是老豬有這一座山場, 也不做甚麼和尚了.)”⁵¹⁾ 여기에서 저팔계는 그리 경건하고 정성스럽지 못할 때가 있으므로 서천으로 가는 길에 올랐어도 험악한 상황에 닥칠 때면 짐을 나누고 흩어지자고 소란을 피운다.

제30회 보상국에서 손오공이 삼장법사에게 내쫓기고 사오정은 황포요괴한테 잡혀 밧줄에 묶여 있고 삼장법사는 황포요괴의 요술로 호랑이로 변해 쇠초롱에 갇혀 있으며, 용마도 황포요괴와의 싸움에서 상처를 입자 저팔계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할 생각은 하자 않고 오히려 붓짐을 둘러메고 高氏 집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이때에 흩어지지 않고 뭘 기다리겠는가(不趁此散伙, 還等甚麼)?”고 했다. 龍馬의 거듭된 권고로 그는 손오공을 모시러 간다고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그가 정말 오려고 한다면 함께 올 것이고, 그 치가 오지 않겠다면 너도 나를 기다리지 마라. 나도 오지 않을 테니까(他若不來, 你卻去不要望我, 我也不來了.)”⁵²⁾ 라고 한다. 이

51) 《西遊記》, 제30회, 374쪽.

52) 《西遊記》, 제30회, 373-374 쪽.

는 저팔계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서행을 포기하려고 하는 장면이다.

제32회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행은 평정산에 이르렀다. 손오공은 저팔계더러 이 산의 연화동에 가서 요괴의 허실을 탐지하라고 하면 저팔계가 두려워 나서지 않거나 삼장법사가 저팔계를 감싸 줄까봐 눈을 비벼 눈물을 짜내면서 삼장법사가 물으면 저팔계의 도움이 있어야 넘을 수 있다고 말할 준비를 한다. 저팔계는 이것이 계획인 줄도 모르고 손오공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만 보았다.

저팔계가 그 모습을 보기가 무섭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게 사오정! 얼른 그 짐보따리를 내려놓고, 우리 두 몫으로 나누세!” “아니, 둘째 형님! 짐을 왜 나누자는 거요?” 사오정이 어리둥절해서 묻자, 미련통이는 두말도 하지 말라는 듯이 양손을 뻗어 내젓는다. “나누세, 나눠! 자네는 유사하로 돌아가서 다시 요괴 노릇이나 하고, 이 저팔계는 고로장으로 돌아가서 마누라나 만나보세. 백마는 장터에 내다 팔아 가지고 棺이나 마련해서 사부님이 죽거든 파묻어 드리는 데 쓰시도록 하세.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 뿔뿔이 흩어지면 그만이지, 서천 땅에 가고 말고 할 건더기가 어디 있겠나?” 삼장법사가 마상에서 듣다 못해 버럭 호통쳐가며 역정을 냈다. “예끼 이 못난 놈! 한창 길을 잘 가고 있는 마당에 무슨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냐?” 모처럼 스승에게 꾸지람을 들은 저팔계가 시무룩해져서 투덜댄다. “누가 헛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저길 보십쇼! 손오공이 끼이끼이 울면서 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위로 하늘을 뚫고 올라갈 줄도 알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도끼로 찍어내고 기름 가마솥에 던져넣는다 해도 겁을 내지 않는 사내대장부입니다. 그런 친구가 지금은 수심에 가득 차서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돌아오다니, 아무래도 그 산이 말도 못 하게 험준하지 않으면 그곳에 악독한 요괴가 득시글거리는 게 분명합니다. 저 친구가 이 모양인데, 우리 같은 약골들이 무슨 재주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32회

(八戒看見，連忙叫：“沙和尚，歇下担子，拿出行李來，我兩個分了罷！”沙僧道：“二哥，分怎的？”八戒道：“分了罷！你往流沙河還做妖怪，老豬往高老庄上盼盼渾家。把白馬賣了，買口棺木，與師父送老，大家散伙，還往西天去哩？”長老在馬上聽見，責備道：“這個夯貨！走正路，怎麼又胡說了？”八戒道：“你兒子便胡說！你不看見孫行者那裏哭將來了？他是個鑽天入地、斧砍火燒、下油鍋都不怕的好漢，如今戴了個愁帽，眼淚汪汪的哭來，必是那山險峻，妖怪凶狠。似我們這樣軟弱的人，怎麼去得？”)⁵³⁾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서 저팔계는 언제나 고로장을 잊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는 짙은 감정은 그로 하여금 의지가 약하고 늘 동요하는 분리분자가 되게 하였다.

제57회 삼장법사가 산적을 쳐 죽인 손오공을 쫓아버린 후 산행 길에서 목이 말라 저팔계더러 남산 골짜기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했지만, 간지 오래 되어도 오지 않아 사오정더러 마중을 나가게 한다. 六耳獼猴가 손오공 모양으로 변해 가지고 뛰쳐나와 삼장법사를 때려 까무러치게 하고는 행장을 빼앗아 간다. 두 사람이 돌아와 삼장법사가 죽은 것을 보자 사오정은 울었지만 저팔계는 도리어,

동생, 그만 울어. 이제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경전 가지러 간다느니 하는 소린 꺼내지도 말라고. 넌 사부님의 시신을 잘 지키고 있어. 난 말을 타고 이 고을 장터에 가서 은자 몇냥이라도 팔아 관을 사올 테니, 사부님을 잘 물어 드리고 우리 둘은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야. 제57회

(且休哭, 如今事已到此, 取經之事且莫說了。你看着師父屍靈, 等我把馬騎到那個府州縣村店集賣几兩銀子, 買口棺材, 把師父埋了, 我兩人各尋道路散伙。)54)

이 역시 저팔계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이 신성한 일에 대해 동요를 일으킨 것이다. 또한 사타산에서 사자요괴가 한 입에 손오공을 삼켜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삼장법사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한참 주저앉아 있다가 발을 구르고 기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저팔계는 사부님을 위로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사오정, 짐을 가져와서 우리 둘이 나누자. 짐을 나눠서 각자 흩어지자 …(중략)… 너는 유사하에 가서 다시 사람을 잡아먹고 나는 고로장으로 돌아가 마누라나 만나야겠다. 白馬는 팔아서 사부님을 위해 관이나 사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자. 제 75회

(沙和尚, 你拿行李來, 我兩個分了罷。……分開了, 各人散伙。你往流沙河, 還去喫人; 我往高老莊, 看看我渾家。將白馬賣了, 與師父買個壽器送終。)”55)

제76회에 이르러 손오공이 위협에서 벗어나 요괴의 콧구멍으로 기어 나와 산

53) 《西遊記》, 제32회, 397쪽.

54) 《西遊記》, 제57회, 702쪽.

55) 《西遊記》, 제75회, 926쪽.

동쪽을 거쳐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멀리서 삼장법사가 땅바닥을 구르며 슬피 울고 있고, 저팔계와 사오정은 붓짐을 풀어헤치고 서로 짐을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은 나직이 탄식했다.

두말할 것도 없어. 분명 저팔계 녀석이 사부님께 내가 요괴한테 잡아먹혔다고 말씀드려서, 사부님께서 내 생각에 통곡하고 계시는 거야. 저 멍텅구리는 물건을 나누고 각자 흩어지려고 하는구나.

(不消講了。這定是八戒對師父說我被妖精喫了，師父舍不得我痛哭，那呆子却分東西散伙哩。)⁵⁶⁾

이번에 저팔계는 정말 말로만 붓짐을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겨 사부가 옆에서 구슬피 울어도 관계하지 않고 사오정과 물건을 나누느라고 손오공이 살아 돌아온 것을 알지 못했다.

제82회 저팔계는 陷空山 無底洞의 요괴와 삼장법사가 밤에 혼례를 치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그는 냇다 발걸음을 돌리더니 단숨에 산꼭대기로 뛰어올라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오정부터 찾았다. “어보게, 사오정! 어서 빨리 짐 보따리를 가져오게. 가져다가 우리 서로 똑같이 나누세!” 짐 보따리를 나누자는 소리에, 사오정은 이 바보 멍텅구리가 또 무슨 변덕을 부리나 싶어 이맛살을 찌푸리고 따져 물었다. “둘째 형님, 짐 보따리를 나누어서 또 어찌겠다는 거요?” “짐 보따리를 나눠 가지고, 자네는 역시 유사하로 돌아가서 사람이나 잡아먹고 나는 고로장으로 돌아가 집안 식구들이나 찾아보고, 형님은 화과산에 돌아가서 원숭이 임금 노릇이나 하고, 백마란 놈은 바다에 돌려보내 용이나 되게 하세. 사부님은 벌써 그 요괴 년의 동굴 속에 들어앉아 혼인 잔치 치르고 오늘밤에 그 계집과 부부가 되기로 얘기가 다 되었다네. 그러니까 우리 세 형제도 각각 살길이나 찾아 헤여지자는 말일세.” 손오공이 듣다못해 야단을 쳤다. “이런 바보 멍텅구리 녀석! 또 허튼소리를 지껄이는구나?” “누가 바로 바로 멍텅구리고 누가 허튼소리를 지껄인단 말이오? 방금 물을 길고 있던 두 요괴들의 얘기가, 소찬으로 혼인 잔치를 베풀어서 당나라 스님에게 먹이고, 오늘밤 중으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제82회

56) 《西遊記》, 제76회, 932쪽.

(急抽身跑上山叫：“沙和尚，快拿將行李來，我們分了罷！”沙僧道：“二哥，又分怎的？”八戒道：“分了便你還去流沙河喫人，我去高老庄探親，哥哥去花果山稱聖，白龍馬歸大海成龍。師父已在這妖精洞內成親哩！我們都各安生理去也！”行者道：“這呆子又胡說了！”八戒道：“你的兒子胡說！才那兩個抬水的妖精說，安排素筵席，與唐僧喫了成親哩！”⁵⁷⁾

저팔계는 사부님마저 환속했다는 소리를 듣고 취경이 가망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더욱 꿈결에도 그리던 고로장에 돌아가려 생각한다.

물론 저팔계가 길에서 계속 원망이 많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큰 장애가 닥칠 때마다 고로장에 돌아가 다시 사위노릇을 되겠다고 하지만 이는 거의 가망이 없다고 여겨져 성질을 부린 것이지 저팔계의 본의는 아니다. 저팔계는 삼장법사가 요괴와 혼인을 했다고 생각되어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의 천성은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데다가 생각도 간단하고 구체적이지 아니라 단지 훌러덩이 말해버린다. 사실 그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의지는 확고하다.

4.2 서천으로 향하는 저팔계

저팔계는 본시 먹기를 탐내는 사람으로서 복룡산에 있을 때는 사람을 잡아먹고 살아 지은 죄가 매우 컸다. 관음보살이 그에게 “명을 받들고 불교에 귀의하며 정진결재하고 소식을 하며 육식을 끊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사람을 기다리라(領命歸眞，持齋把素，斷了五葷三厭，專候那取經人。)”⁵⁸⁾고 권했다. 고로장에서 테릴 사위로 있을 때도 그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보아도 저팔계가 불문에 귀의하고 서천으로 가서 불경을 구하려는 마음이 진심이고 단지 일부 오래된 관습을 일시에 고치기 어려운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팔계의 진심은 삼장법사를 스승으로 모실 때의 태도에서 나타났다.

57) 《西遊記》, 제82회, 1003쪽.

58) 《西遊記》, 제8회, 111쪽.

손오공이 저팔계를 거둬들일 때 두 사람이 雲梯洞 밖에서 승부를 가리기 어렵게 싸웠다. 그러나 저팔계는 손오공이 동녘 땅 당나라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분을 보호하면서 서역으로 가 불경을 구하는 손오공이란 말을 들은 순간 태도가 달라졌다.

저팔계는 쇠스랑을 내던지면서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불경을 구하러 가시는 그분은 어디에 계시오? 수고스럽지만 저를 그분께 데려다주시오.” “네놈이 그분을 만나 뭐하려고?” “나는 원래 관음보살께 착한 일을 하라는 권고를 듣고 그분께 계를 받았소. 이곳에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불경을 구하러 가시는 분을 따라 서역으로 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불경을 구하면, 그 공으로 죄 값을 치르고 정과를 얻게 될 거라 하셨소. 하지만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분의 제자라면서 왜 불경을 구하러 간다는 얘기를 진작 해주지 않고, 그저 흉악한 힘만 내세우며 쳐들어와 나를 치려는 것이오?” “거짓말로 나를 구슬려 도망칠 공리는 마라. 정말 唐나라 스님을 모시겠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늘에 두고 맹세해라. 그러면 너를 우리 사부님께 데려가 뵙게 해주마.” 요괴는 털썩 꿇어앉아 허공을 향해 절구 질하듯 머리를 땅에 쿵쿵 찧으면서 중얼거렸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제가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또다시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니, 그렇다면 제 몸을 만 갈래로 찢어주십시오.” 손오공은 요괴가 주문을 외면서 소원을 비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정말로 네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살던 이곳을 불태워버려라. 그러면 널 데려가지.” 저팔계가 정말 마른 풀과 가시덤불을 쌓고 불을 놓으니, 雲梯洞은 부서진 기와 가마처럼 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손오공에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걸릴 것이 없으니, 나를 데려다주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그 쇠스랑을 나한테 넘겨라.” 요괴는 끈장 쇠스랑을 손오공에게 넘겨주었다. 손오공이 털을 한 올 뽑아 입으로 신선의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변해라!” 하고 외치자 쇠스랑은 세 가닥으로 위인 삼끈으로 변했다. 손오공은 요괴에게 다가 가 요괴의 손을 등 뒤로 돌리게 하고 그 끈으로 동여맸다. 그 요괴는 정말 순순히 손을 뒤로하고 묶도록 내버려두었다. 손오공은 요괴의 귀를 잡아당겨 끌고 가면서 말했다. “빨리 걸어! 빨리!” 저팔계가 “좀 살살해요. 손매가 때워서 잡아당기니까 아프잖아요.”라고 하자 손오공이 말했다. “살살하라고 지금 네 사정 봐달라는 거냐? “착한 돼지일수록 세계 잡아라”는 말도 있잖아. 사부님을 뵙고 내가 정말 진심이라는 게 밝혀지면 놓아주지.” 제19회

(那怪一聞此言, 便丟了釘鈹, 唱個大喏道: “取經人在那裏? 累煩你引見。”行者道: “你要見他怎的?” 那怪道: “我本是觀音菩薩勸善, 受了他的戒行, 這裏持齋把素. 教我跟隨那取經人, 往西天拜佛求經, 將功折罪, 還得正果. 教我等他, 這几年不聞消息. 今日既是你與他做了徒弟, 何不早說取經之事, 只倚

兇強，上門打我？”行者道：“你莫詭詐欺心軟我，欲爲脫身之計。果然是要保護唐僧，略無虛假，你可朝天發誓，我才帶你去見我師父。”那怪扑的跪下，望空似搗確的一般，只管磕頭道：“阿彌陀佛！南無佛！我若不是真心實意，還教我犯了天條，劈屍萬段！”行者見他賭咒發願，道：“既然如此，你點把火來，燒了你這住處，我方帶你去。”那怪真個搬些葦葦荊棘，點着一把火，將那雲棧洞燒得像個破瓦窯，對行者道：“我今已無掛碍了，你卻引我去罷。”行者道：“你把釘鈿與我拿着。”那怪就把釘鈿遞與行者。行者又拔了一根毫毛，吹口仙氣，叫“變”，即變作一條三股麻繩，走過來把手背綁剪了。那怪真個倒背着手，凭他怎麼綁縛。却又揪着耳朵，拉着他，叫：“快走！快走！”那怪道：“輕着些兒！你的手重，揪得我耳根子疼。”行者道：“輕不成！願你不得！常言道：‘善豬惡拿’。只等見了我師父，果有真心，方才放你。”⁵⁹⁾

이 회에서 저팔계는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이름을 말하자 즉시 무기를 던지고 항복하는 동시에 손오공이 어떻게 처리해도 맹세하라고 하면 맹세하고 불을 놓아 글을 태우라 하면 태우고 묶으려하면 묶이고 잡아끌면 끌리고 아파도 참는다. 이 돼지는 원래 성질이 강직하고 외곱이며 이전에는 당당한 천봉원수였기에 그렇게 성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멍청한 짓을 한다면 소 아홉 마리라도 돌려세우기 어렵다. 그런데 “三藏法師”라는 말을 듣자 귀신에게나 홀린 것처럼 “백 번 연마한 철강이 고분고분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불경 구하러 가려는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고 영혼의 만회를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질박한 기를 알 수 있다. 사람에게 선량한 마음이 있으면 하늘이 필연코 돕는다. 저팔계가 우둔한 산 속의 나무꾼으로부터 天蓬元帥로 수련될 수 있었으며 또 돼지로부터 환생하여 다시 “淨壇使者”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 우둔한 힘 그리고 성실한 마음에 의지한 것이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모두 여래불이 그들에게 준비한 가락지와 주문도 쓰지 않았고 또 그들 형제 두 사람의 무예가 큰 사형 손오공보다 많이 차이가 나지만 마음이 좋고 진심인 점에서 확실히 피를 많이 부리는 큰 형보다 낫다. 삼장법사마저 저팔계를 이 “멍청이는 심성이 우둔하지만 강직하다(呆子雖是心性愚頑，却是一味儻直。).”⁶⁰⁾ 고 평가한다.

59) 《西遊記》, 제19회, 244쪽.

60) 《西遊記》, 제23회, 294쪽.

저팔계가 절실한 마음으로 불문에 귀의한 것은 또 관음보살과 사부 삼장법사를 경건하게 대하는데서 표현된다. 저팔계가 유사하에서 사오정과 싸우고 강 언덕에 올라오자 삼장법사가 말했다. “저팔계야, 고생이 많았구나(徒弟辛苦嘍).” “고생이랄 것까지야 뭐 있겠습니까? 요괴를 항복시켜 사부님께서 강을 건너시게 되면 그제 완벽한 계획이 되는 건데.(且不說辛苦, 只是降了妖精, 送得你過河, 方是萬全之策. 제22회)”⁶¹⁾ 이는 저팔계가 사부의 불경 구하는 대업에 결연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회에서 저팔계가 또 사오정과 쫓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것을 본 손오공이 남해에 가서 관음보살의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자 저팔계는 한 가지 부탁을 잊지 않았다.

“형님, 가시면 제발 날 위해 한 말씀 올려주시구려 지금껏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다고 말아야.” 제22회

(師兄, 你去時, 千萬與我上復一聲: 何日多承指教。) 62)

이것으로만 봐도 저팔계는 자신을 魔道 妖門에서 구해낸 관음보살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감격해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성실한 성품 외에 저팔계에게는 또 험난한 사경에 처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대장부의 기개가 있다. 저팔계의 재간도 꽤 팬찮으며 사오정과 거의 비슷하다. 인간세계로 쫓겨 오기 전까지 그는 크게 이름 떨친 천봉원수였는바 쇠스랑으로 산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서천으로 불경 구하러 가는 길에는 팔십일 난이 네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다. 도중에 만나는 요괴들은 범술이 능통하여 늘 天羅地網을 펼치고 넷을 곤궁에 빠뜨렸다. 요괴의 소란에 대비해 제천대성 손오공도 누차 관음보살을 청해 구조를 받았다. 이류 무예를 갖춘 저팔계로선 더욱 적과 맞설 수 없었다. 그가 늘 묶이는 재난을 겪게 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여러 차례나 재난에 휘말려 들어가도 요괴에게 굴복한 적이 없고 살려 달라 구걸한 적 없이 언제나 “욕하고 또 욕하며 소리치고 또 소리쳤다.”

61) 《西遊記》, 제22회, 275쪽.

62) 《西遊記》, 제22회, 279쪽.

소가죽 포대 속에 잡혀 들어가 대들보 위에 매달려 죽기를 기다릴 때에도 굴복할 뜻이라곤 털끝만치도 없는 것은 정말 존경할만한 일이다.

이는 제41회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된다. 聖嬰大王 紅孩兒은 관음보살로 변신하고 저팔계를 유혹한다. 멧덩구리는 사리분별도 못한 채 요괴를 따라갔다. 왔던 길을 그대로 밟아, 남해로 가지는 않고 火雲洞으로 왔다. 곧 동굴 문 앞에 도착했다.

요괴 왕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의심할 것 없다. 여기 동굴 주인은 나의 친구이니, 너도 들어오너라.” 멧덩구리가 할 수 없이 걸음을 옮겨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줄개 요괴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저팔계를 잡아 넘어뜨려 자루 속에 넣고 입구를 끈으로 단단히 묶은 다음, 대들보 위에 높이 매달아놓았다. 요괴는 본모습으로 돌아와 무리들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저팔계, 네까짓 게 무슨 재주가 있다고 감히 唐나라 승려를 보호해 경전을 구하고 보살께 나를 무찌를 것을 청한다는 거냐? 두 눈 똑똑히 뜨고도 내가 성영大王이란 걸 못 알아보다니! 널 잡았으니 사나흘 매달아놨다가 꼭 써서 줄개들에게 주어 술안주나 하게 해야겠다.” 저팔계는 이 말을 듣고 자루 안에서 욕을 해댔다. “못된 괴물 놈! 참으로 무례하구나! 술수로 속여서 날 잡아먹어? 너희들은 다 머리가 부어오르는 열병에 걸릴 것이다!” 제41회

(頃刻間到了門首，妖精進去道：“你休疑忌。他是我的故人，你進來！”呆子只得舉步入門，衆妖一齊吶喊，將八戒捉倒，裝於袋內。束緊了口繩，高吊在馱梁之上。妖精現了本相，坐在當中道：“豬八戒，你有甚麼手段，就敢保唐僧取經？就敢請菩薩降我？你大睜着兩個眼，還不認得我是聖嬰大王哩！如今拿你，吊得三五日，蒸熟了，賞賜小妖，權爲案酒！”八戒聽言，在裏面罵道：“潑怪物！十分無禮！若論你百計千萬，騙了我喫，管教你一個個遭種頭天瘟！”)⁶³⁾

멧덩구리가 욕을 해대고 소리를 질러댄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후에 行者는 금박을 입힌 붓짐으로 변해 화운동으로 들어와 진짜 몸은 파리로 변해서 가죽자루에 앉아 “저팔계가 이 요괴 놈 저 요괴 놈” 하며 악담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어찌 관음보살로 변해서 나를 속여 데려와 여기에 매달아놓았느냐? 더구나 날 먹겠다고? 언젠가 우리 형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우리 형님께 서— “제천대왕이 無量 術法을 한바탕 펼치는 날이면, 이 산중의 못된 괴물을

63) 《西遊記》, 제41회, 513쪽.

몽땅 때려잡고 말 것이요. 가죽 자루를 열어서 나를 내놓는 날이면. 아홉 이빨 달린 쇠스랑으로 네놈을 천번 만번 찍어서 내 분풀이를 하고야 말테다!”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몰래 웃었다. “이 멧덩구리가 이 안에서 곤욕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망신스러운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구나. 이 어르신 이 요괴 놈을 꼭 잡아주겠다. 아니면 이 울분을 어떻게 풀겠어!” 제41회 (“你怎麼假變作個觀音菩薩，哄我回來，弔我在此，還說要喫我！有一日我師兄：大 展齊天無量法，滿山潑怪登時擒！解開皮袋放我出，筑你千鈞方趁心？”行者聞言，暗笑道：“這呆子雖然在這裏面受悶氣，却還不倒了旗槍。老孫一定要拿了此怪。若不如此，怎生雪恨！”)⁶⁴⁾

요괴한테 잡혀간 저팔계는 달아매도, 물에 잠가도 해도, 찌거나 삶아 먹으려 해도 언제나 투항한 적이 없으며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무사하기만 하면 적에게 투항하거나 집단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앞서 제40 회에서 손오공은 자신의 권고를 듣지 않던 삼장법사가 또 聖嬰大王에게 붙잡혀가자 실망한 나머지 불경 가지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헤어지자고 말할 때, 八戒 역시 처음에는 손오공의 말에 동조했지만 사오정이 제각기 갈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기며 “그러면 자기 덕행을 더럽히고 사람들의 웃음을 산다(壞了自己的德行，惹人耻笑。).”라고 말하자, 저팔계는 끝까지 불경을 구하려 가야한다는 마음이 있음을 보였다. 손오공이 말했다. “저팔계야, 너는 도대체 어쩔 셈이냐(八戒，你端的要怎的處)?” “내가 좀 전에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몇 마디 하기는 했지만, 사실 흠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형님, 어쩔 수 없으니 다시 사오정 동생의 말대로 그 요괴를 찾아 사부님을 구하러 갑시다(我才自失口亂說了幾句，其實也不該散。哥哥，沒及奈何，還信沙弟之言，去尋那妖怪救師父去。).”⁶⁵⁾ 이 대화 가운데서 八戒는 중요한 때에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본심도 여기에서 정확히 알 수 있다.

실제로 소설에서는 저팔계의 서행 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묘사를 한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30회와 31회에서도. 이 두 회에서는 재치 있는 필묵으로 그의 “六不易(여섯 가지가 쉽지 않은)” 사연을 그려냈다. 손오공은 세 번 백골정을 때려

64) 《西遊記》, 제41회, 514쪽.

65) 《西遊記》, 제40회, 498쪽.

화과산으로 쫓겨 갔다. 사오정은 황포요괴한테 잡혀 완자산 괴월동에 끌려갔다. 삼장법사는 황포요괴의 마법에 걸려 호랑이로 변해 쇠초룻에 갇혔다. 백룡마는 삼장법사를 구하려다 요괴에게 뒷다리를 크게 다쳤다.八戒는 황포요괴의 적수가 못 되기에 한 때 고로장에 되돌아갈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백마의 절절한 권고를 듣고 “두 귀를 뚫처럼 추켜세우고(撐起兩個耳朵, 好便似風篷一般。)”⁶⁶⁾ 구름을 타고 화과산으로 황급히 손오공을 청하려 달려간 것이 첫째 쉽지 않은 일이다. 평소에 저팔계는 손오공과 그리 화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손오공이 화과산으로 쫓겨 간 것도 그가 삼장법사 앞에서 세 번이나 “모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哭喪棒” 맛을 몇 번 붙 위험도 무릅쓰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손오공을 청하려 간 것이 두 번째로 쉽지 않은 일이다. 손오공은 “사부님이 형을 그리워해서 온 거예요(師父想你, 着我來請你的。)”⁶⁷⁾ 라는 것이 저팔계의 거짓말임을 간파한 후 기어코 함께 화과산을 둘러보고 또 수렴동으로 청해 식사하게 할 때 저팔계는 한편으로 “형님, 이곳은 길이 멀어 기다리는 사부님한테 갈 시간이 늦어질 까봐 나는 놀지 않겠소(哥阿這個所在路遠, 恐師父盼望去遲, 我不要子了。)”⁶⁸⁾ 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형님, 사부님이 저쪽에서 나와 형님을 기다리고 있소. 빨리 가십시다(哥哥, 師父在那裏盼望我和你哩. 望你和我早早兒去罷。)”⁶⁹⁾ 라고 했으며 또 “형님의 호의에 정말 감사하오. 하지만 사부님이 오래 기다리고 계시니 어찌겠소? 수렴동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소(多感老兄盛意. 奈何師父久等, 不勞進洞罷。)”⁷⁰⁾ 라고 했다. 삼장법사를 구할 기회를 놓칠까봐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마다하고 전전공공하는 것이 세 번째 쉽지 않은 일이다.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본 손오공은 “기왕에 쫓아냈으면 다시는 나를 생각하지 말라(既趕退了, 再莫想我。)”⁷¹⁾ 고 삼장법사에게 전해 달라 말한다. 저팔계는 산에서 내려오며 투덜거린다. “이 원숭이야, 되라는 스님은 안 되고 요괴가

66) 《西遊記》, 제30회, 374쪽.

67) 《西遊記》, 제30회, 375쪽.

68) 《西遊記》, 제30회, 375쪽.

69) 《西遊記》, 제30회, 376쪽.

70) 《西遊記》, 제30회, 376쪽.

71) 《西遊記》, 제30회, 376쪽.

되려 하는군(這個猴子, 不做和尚, 倒做妖怪。)"⁷²⁾ 이렇게 욕설 퍼부으며 그는 다시는 요괴가 되지 않고 스님이 되겠다는 자기 본심을 털어놓았다. 이것이 네 번째로 쉽지 않은 일이다. 자기를 욕하는 것을 본 손오공은 줄개들을 시켜 저팔계를 산으로 붙잡아 오게 한다. 저팔계는 실상을 말해준 후 애타게 애걸한다. “형님께서 ‘하루 스승은 평생의 아버지’란 정분을 봐서라도 한번 꼭 구해주오(萬望哥哥念一日爲師, 終身爲父之情, 千萬救他一救!)” 그러면서 저팔계는 재간을 피워 “순순히 청하는 게 격분시키는 것보다 못하리니 내가 한번 짐을 놓아보자(請將不如激將, 等我激他一激。)"⁷³⁾ 라고 생각을 굴린다. 삼장법사를 구하기 위해 그는 정말 온갖 수단을 다 썼는데 이것이 다섯 번째로 쉽지 않은 일이다. 저팔계는 손오공과 반드시 함께 구름을 타고 가자고 강요하며 함께 스승을 구하자고 애걸했는데, 손오공이 진심으로 사부를 구하지 않을까봐 그런 것이다. 동해를 건너서야 그는 마음 놓았다. 이것이 여섯 번째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여섯 가지 쉽지 않은 일”은 팔계의 취경 의지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저팔계는 관음보살을 만나 깨우치고 손오공과 싸워 항복한 후,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어 마침내 서천에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여정에 오르게 되었다. 14년이란 긴 시일과 10만 8천리란 머나먼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서 그는 비록 손오공의 독촉과 삼장법사의 꾸짖음, 사오정의 신앙심의 감동 아래서, 재차 도를 닦아 신선이 되고 천당에 돌아갈 수 있다는 유혹적인 전제아래서 이 과업을 해냈지만 그래도 그는 결국 삼장법사를 호송해 불경 구하는 대업을 완수한 쾌거를 이루어낸 것이다.

손오공과 마찬가지로 저팔계도 사람과 짐승, 신이 합쳐진 통일체이다. 사람이란 측면에서 그는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일을 하며 심리활동, 사유, 정감 역시 세속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그는 분명 보통사람과는 구별된다. 외모가 흑돼지와 흡사할 뿐더러 심지어 돼지와 같은 습관 등은 그의 동물적인 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구름과 안개를 타고 36가지 변화에 정통하며 태어날 때부터

72) 《西遊記》, 제30회, 374-376 쪽.

73) 《西遊記》, 제31회, 380쪽.

비범한神通력을 갖고 있는 내력 등은 인간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팔계의 사람과 짐승, 신, 이 세 가지 다른 속성은 아주 교묘하고도 적절하게 한 인물에 집중되어 그 형상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고 친근감을 준다. 물론 저팔계의 몸이 사람, 짐승, 신이란 세 가지 속성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중 사람의 특징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때문에 저팔계의 성격과 개성을 담론할 때 아마도 그의 사람으로서의 측면에 치우쳐야 할 것이다. 백회본 《서유기》 가운데 저팔계의 인물 형상은 복잡하고도 풍부하여 사람들에게 생생한 입체감과 변화감을 던져준다.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행 중 삼장법사, 손오공과 사오정은 등장하자마자 개성과 형상이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언행에서 새로운 표현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성격에는 그리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저팔계의 개성만은 이야기 줄거리의 진화에 따라 발전하며 그 형상은 줄거리의 추이에 따라 풍부해 진다. 앞의 각도에서 말할 때, 《서유기》는 바로 저팔계 인물 형상의 역사이자 개성 전개의 발전사이다.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행 중에서 손오공과 저팔계는 좌충우돌하는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늘이 낳고 땅이 만들어 낸 대조적인 형제이고 파트너이며 단짝이다. 하나는 여위고 다른 하나는 뚱뚱하며, 하나는 포부를 지녔고 다른 하나는 속되며, 하나는 담과 식견에 의하고 다른 하나는 경험에 의하여 처사하며, 하나는 줄개 요괴를 치기 즐기고, 하나는 명예를 숭상하며 이득을 챙기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이득을 챙기고 명예를 숭상하지 않으며, 하나는 가정에 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다와 파도를 헤치기를 즐기며, 하나는 서북풍만 마시고 살고 다른 하나는 밥통이 산골짜기 같으며, 하나는 기민하고 익살스럽고 다른 하나는 소박하고 무뎠으며, 하나는 야박스럽고 다른 하나는 교활하고 간사하며, 하나는 구변이 좋고 다른 하나는 입이 무디며, 하나는 무거운 일 더러운 일을 피하는 것을 존귀하고 고상하다고 여기고 다른 하나는 밭을 갈고 농사짓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능력으로 간주하며, 하나는 가는 곳마다 시민계층의 영웅적 기질을 과시하고 다른 하나는 늘 소농계층의 낮은 것을 고집하는 심리를 나타낸다. 서천으로 가는 길에서 저팔계에 대한 손오공의 가시 돌친 보복이 장난과 손오공에 대한 저팔계의 못된 장난이 불

경을 구하러 가는 가족의 모순의 핵심을 구성하여 가족내부에 사랑과 증오, 담과 지혜겨름이 존재하게 한다. 한편, 두 사람간의 모순의 심화와 발전 가운데서, 작가는 저팔계와 손오공의 선명하게 대립되는 개성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기타 가족성원들과의 관계를 반영하였다. 불경을 구하는 작업이 끝나지 않는 모순과 희극이 끝나지 않는다.

저팔계의 존재는 《서유기》의 웃음을 금할 수 없게 하는 희극적 정취를 조성하였고, 수많은 희극적인 장면을 통해 긴장하고 단조로운 기분을 깨뜨렸으며, 독자 들의 희열과 흥미를 더해주었다. 때문에 저팔계는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행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구성원이다.

《參考文獻》

- 오승은 지음 · 임홍빈 옮김, 《서유기》 1-10권, 문학과 지성사, 2003.
오승은 지음 · 서울대학교서유기번역연구회 옮김, 《서유기》 1-10권, 솔, 2004.
(明)吳承恩 著, 《西遊記圖咏》 上下, 北京·中國長安出版社 2003.
無名氏 原著, 《李安網批評西遊記》 上下,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中國社會出版社, 2004.
陳敦甫, 《西遊記釋義》, 臺北縣全真教全真觀, 1976.
(明)陽至和 撰, 《西遊記》 四卷, 臺北·世界書局 1968.
楊家駱 主編, 《四遊記》, 臺北·世界書局, 1968.
鄭振鐸, 《古典文學論集》, 上海古籍出版社, 1984.
胡適, 《古典文學研究論集》, 上海古籍出版社, 1988.
朱一玄, 《明清小說資料選編》, 齊魯書社, 1989.
劉蔭柏, 《西遊記研究資料》, 上海古籍出版社, 1990.
丁錫根, 《中國歷代小說序跋集》, 人民文藝出版社, 1996.
張錦池, 《西遊記考論》, 黑龍江教育出版社, 1997.
屈小強, 《西遊記中迷的懸案》, 四川人民出版社, 1997.
《西遊記文化學刊第一輯》, 東方出版社, 1998.
薩孟武, 《紅樓夢與中國舊家庭 水滸與中國社會, 西遊記與中國政治》, 岳麓書社, 1998.

- 劉耿大,《西遊記迷境探幽》,學林出版社,1998.
- 蔡鐵鷹,《西遊記之謎》,中州古籍出版社,1998.
- 老庵 選編,《西遊故事》,江西教育出版社,1999.
- 馮雅靜,《漫話西遊記》,河北人民出版社,2000.
- 吳微,《風光無限話西遊》,安徽文藝出版社,2001.
- 劉戈,《西遊記新論》,學苑出版社,2002.
- 張貴榮,〈豬八戒形象的文化意蘊〉,甘肅教育學院學報(社會科學版),1998/02.
- 淮茗,〈西天路上的凡夫俗子豬八戒悲劇新說〉,名作欣賞,2001/06.
- 張又,〈豬八戒貪色之緣由考辨〉,明清小說研究,2002/03.
- 楊德柱,〈豬八戒形象簡論〉,遵義師範學院學報,2002/03.
- 余箏,〈論豬八戒《西遊記》人物評析〉,黃山學院學報,2003/02.
- 蕭兵,〈豬八戒論考〉,淮陰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3/04.
- 張松葉,〈豬八戒命名形象的審美價值及佛學寓意〉,西安石油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4/04.
- 李安綱,〈豬八戒形象的文化意蘊〉,連城學院學報,2004/06.
- 胡勝,〈論百回本《西遊記》的藝術形象創新——以孫悟空與豬八戒形象的藝術演進為例〉,廣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4/12.
- 閻拉成,〈豬八戒命名的宗教意蘊考釋〉,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5/01.

〈中文提要〉

《西遊記》中的豬八戒,是個家喻戶曉、婦孺皆知的人物。與孫悟空相比,豬八戒的血統問題要複雜得多。論其形象來源,《取經詩話》中沒有。最早見於《朴通是諺解》注引《西遊記平話》,道是“黑豬精朱八戒”。《西遊記》雜劇改“朱八戒”為“豬八戒”,易“黑豬精”為“金色豬”,說他是“搭琅地盜了金玲,支楞地頓開金鎖”,走入下界為妖的“魔利支天部下御車將軍”。

《西遊記》承襲了雜劇豬八戒的姓氏而變更了其來由。在第八回里說他本是天河里的天蓬元帥,因貪酒耳醉,調戏嫦娥仙子,被玉帝貶下凡塵,又誤投了母猪胎,弄成了猪身。爾后又被觀音菩薩摩頂受戒,遂皈依了佛門。

在《西遊記》取經家族中,悟空和八戒左冲右突性格完全相反,却又是天造地設的兄弟。

伙伴与搭档。一个身材瘦小，一个体态粗胖；一个怀抱理想，一个沉于世俗；一个見事凭胆識，一个作事靠經驗；一个好掃小妖；一个尚名不圖利，一个圖利不尚名；一个精田韋草，一个欲海揚波；一个喝風呵烟，一个食腸如壑；一个机敏 诙谐，一个質朴 憨直；一个好使促狹，一个好弄狡黠；一个伶牙俐齒，一个笨嘴笨舌；一个以不干臟活累活爲尊，認作清高；一个以長于耕田耙地爲榮，視爲能耐；一个處處流露出市民的英雄 气質，一个時時 体现着小農的守旧心理。西行途中，悟空對八戒的作弄和八戒對悟空的作弄，构成了取經家族的矛盾核心，使家族內部有了恩恩怨怨、斗智斗勇。而在兩人矛盾的深化、發展 当中，既刻畫出了八戒 与悟空鮮明對立的个性，又反映出了他 与其他家庭成員之間的關係。取經不息，矛盾不止，喜劇不斷。八戒的存在，營造了《西游記》忍俊不禁的喜劇情趣，帶來了無數滑稽可笑的場面，冲淡了緊張單調的气氛，也增加了閱讀的喜悅和興味。八戒因此成爲取經家族里不可或缺的一員。

關鍵詞：誠實·勤勉 率直·單純 奇拔·諧謔